朝鮮日報
夕刊 二十五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左右兩軍勢伯仲으로 西班牙動亂去益激化

카將軍首班으로 叛軍新政府樹立

大統領은 國民에 呼訴

【사라고사=北西班牙=二十四日發同盟】叛亂軍北軍總司令모라將軍은 二十四日午後 革命軍新政府의樹立을 宣言하고 如左히發表하엿다

西班牙領土의 十分之六은 革命軍의手中에 歸하고 左翼政府는 崩潰하엿다 革命軍은이에 愛國者카바네라將軍을 首班으로한 新政府를 組織하다

【마드리드二十四日發同盟】西班牙大統領 아자니아氏는 內亂의 擴大를 憂慮하고 二十三日深更 마드리드放送局으로부터 全國民에게 對하야 如左히訴하얏다

反亂은 거의 鎭定되어 共和制는 勝利를 確保하엿다

但 國民諸君은 共和制擁護를 爲하야 血의 最後의 一滴까지 奮鬪하도록 希望한다

首都附近에서 兩軍大激戰中 大勢는 叛軍에有利

【마드리드廿四日發同盟】廿三日마드리드市의 西北四十五키로에잇는 고개의關門 과다라마山脈을奪取를 目標로 進擊해온 叛亂軍은 政府側의 砲兵、步兵、空軍의 猛擊에 一旦 退却하엿스나 廿四日未明에 再次 逆襲해와서 政府軍과의사이에 猛烈한 戰鬪를 展開하야 殷殷한 砲聲은 마드리드에서도 分明히 들을수가 잇섯다 戰鬪의 勝敗는 아직 어느편으로도 決定되지안헛는데 마드리드市民軍뒤는 靑內衣、黑下衣에 몸을잔 民軍團이 모다 「총 모여! 進軍하자」고 高唱하며 勇躍 政府軍의 應援에 參加하고잇다 (寫眞은 아자니아大統領)

左、右兩軍이 산·세바스티안爭奪戰

【이룬=北部西班牙=二十四日發同盟】비스케灣에 臨한 北部西班牙의勝地 산·세바스티안에서는 目下 叛亂軍과 勞働義勇軍과의 사이에 猛烈한 爭奪戰이 展開되엿다 共產黨員을 主力으로한 勞働軍團은 市內外의 要所를 占據하고 叛亂軍所屬飛行機의 爆擊에對하야 頑强히 抵抗하고잇던바 二十四日午後에 至하야 爆擊을 即時中止치안는以上 人質로하고잇는 西班牙貴族五百名을 銃殺하겟다는旨를 叛亂軍側에 通告하엿다고한다 산·세바스티안에 避暑中인 英米伊各國大使等은

方叛亂北軍의先鋒은 소모시에라

【마드리드二十四日發同盟】右翼叛亂軍은 모록코 植民地에서 蹶起한以來 이미 旬日 總司令프랑코將軍의 作戰이 着着奏功하야 叛亂軍은 方今 首都를떠나 四十五키로의 地點에 肉迫하게되엇다 政府軍은 步兵部隊六千을中心으로 野砲山砲의 砲列을치고 또空軍精銳를總動員하야 과다라마嶺一帶에 最後의 防線을 페고 必死의 防戰에 當하고잇는데 一方叛亂北軍의先鋒은 소모시에라北部를 占據하고 二十四日未明부터 猛攻擊에옴겨 이에 兩軍은 무서운激戰을 展開하게되엇다는데 砲聲은殷殷히 마드리드市까지들려왓다고한다 戰爭의 結果에關해서는 兩軍이 모다 勝利를 거두엇다고 宣傳하고잇서서 二十四日夜半에 至하여도 眞相을 把握할수가업스나 一般의 情勢를 綜合하건대 叛亂軍은 着着 首都로 向하야 進擊中이라고보인다 人民戰線政府는 義勇軍을 募集하야 此等義勇軍은 軍服을 입지안코 黑下衣靑內衣로 몸을 싸고 가지각색으로 武器를 들고 차례로 前線에 出動하엿다 또 兩軍이 모다 戰車、野砲、軍用機等을 前線에 集結하고잇스므로 情勢에 重大變化가업는限 과다라마嶺을끼고 兩軍間에 一大決戰이 展開될것으로보인다

西班牙叛亂縱橫觀

複雜한左翼陣營 大同團結政權獲得

③ 韓普容

우에서 이미 말한바와 가티 西班牙는 大體로 農業國의 領域을 버서나지 못하엿슬뿐아니라 國民의 多數가 카톨릭敎를 信奉하고 잇스니만치 아즉도 封建的遺產이 國民精神上乃至 社會制度上에 相當히 남어잇는 나라이다。그러나 그反面에잇서 西班牙의 思想界는 歐洲 어느나라보다도 進步的地位를 갓게되엿다。佛蘭西大革命以後 어느나라보다도 먼저 進步的憲法을 制定한나라는 西班牙이엿고 現在에 이르러서도 國民多大數의 支持下에 無血的革命으로 帝政을 廢止하고 左翼政權을 樹立한나라는 西班牙뿐이다。레닌은 일즉이 「蘇聯의 뒤를니어 歐洲에서 第一 먼저 쏘베트化할 나라는 西班牙일것이다」라고 豫言하엿거니와 이말의 適中如否는 疑問이지마는 如何間 레닌의 말에依하야 西班牙國情은 넉넉히 推測할수 잇슬가한다。이와가티 西班牙에는 極左極右의 兩大勢力이 對立하여잇서 이나라의 政治的 社會的 不安狀態는 여기서 發生하게되엿다。

西班牙의 左翼陣營은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더욱 複雜하다。大體로 共產主義者 社會主義者 無政府主義者及 산듸칼리스트로 大別할수잇지마는 산듸칼리즘 陣營이 다시 複雜하야 日赤色산듸칼리즘、日自治산듸칼리즘、日改良산듸칼리즘等等。이와가티 左翼陣營이 複雜한 關係로 그들各派의 主義主張이 相異하야 勞働戰線의 統一을보지못하고 從來에는 그들左翼相間의 鬪爭이 激烈하엿다。그리하야 그들은 가튼左翼內의 다른分派의 勢力伸張을 阻止하기爲하야 總罷業에 臨하여서도 一致行動을 取하지 안코 背信行爲를 敢行하엿다。背信行爲를 茶飯事로하기는 산듸칼리스트가 가장有名하다。그들사이의 背信的行爲는 總罷業에 잇서서뿐만아니라 選擧에 잇서서도 亦然하다。그들은 同一左派內의 다른分派를 抑制하기爲하야 그들의 共同敵인 부르조아右翼 諸派에 投票하는일이 적지안헛다。一九三三年十一月總選擧에 右翼戰線이 그가티 大勝하게된 한가지 重要原因은 그들사이의 背信行爲에 잇섯든것이다。

힐·로브레스(Gil Robles)氏를黨首로한 카톨릭農民大衆黨中心의 西班牙의 팟시스트運動은 帝政이沒落되고 左翼政權下의 急進的社會政策에 對抗하야 精密한 組織下에 急激한 發展을 보게되엿다。그들의 背後에는 全國的大地主가잇고 無數한 카톨릭敎徒가잇다。그들은 一九三一年三二年頃 大恐慌襲來를 利用하야 『失業救濟』라는 看板下에 勞働者 農民까지 끄집어너코 『私有財產은 天賦의 權利인同時에 國家經濟의 主要部分이다。階級鬪爭은 羅馬法王이 啓示하는 基督敎的 쇼시알로-지-(社會學)의 光榮의나라에 勞資의 圓融이잇서서는 안된다』는等 形而上學的 理論으로 無產大衆을 說服하기에 努力하엿다。恐慌의 深刻化로 重工業部門에잇서 三三年은 三一年에比하야 二○·七二%의 生產減退를 보게되엿고 外國貿易도 加速度로 激減되엿다。農產物도 亦然하엿다。勞働賃金은 삭고 失業者는 沙汰가낫다。罷業은 續出하야 三三年 一年間의 罷業數만이 大小六千餘件에 達하엿스니 社會不安이 어떠한 程度에 達하엿슬것을 可知할수잇다。右翼諸黨은 反政府的立場에잇섯스니만치 이모든不美한 社會現象을 自派에 有利하도록 利用宣傳하야 帝政復活을 公言하면서도 多數의 勞働者 農民까지도 自派陣營內에 消化식히며 나날이 그勢力을 伸張하여왓슴에 反하야 左翼陣營은 小異로 相衝하야 無統制 無秩序의 醜態를 演出하야 姉妹黨의 勢力伸張을 阻止할 目的으로 共同의 敵 右翼反對黨에 投票하게쯤 되엿스니 三三年總選擧에 慘하게 敗北하게된것은 當然히 도라올 必然한 結果이엿다。

그러나 左翼諸黨間의 背信行爲라는것은 程度가잇는것이엿고 또 客觀的 情勢如何에 依하야 是正될수잇는 것이다。그리하야 三三年十一月總選擧慘敗의結果 右翼反動政權의 出現은 그들에게 無上의 敎訓을 주게되엿다。右翼政權의 極端的反動政策에 餘地업시 彈壓을 當하게된 左翼各派는 이에 精神을 번적차리고 頑强히 反抗하야 及其也 一九三四年十月革命까지에 事態를 展開식혓다。그러나 그들의 힘은 아즉 不足하야 官軍의 彈壓에 數千生靈의 犧牲者만 내엿슬뿐이오 目的의 革命事業은 達치못하엿다。十月七日 카탈로니아 산듸칼리스트의 獨立宣言도 一日天下로 終焉되고마럿다。反面에잇서 이革命의失敗와 右翼政權의 보다더 橫暴한政策은 左翼諸派의 陣營을 보다 더 튼튼히 만드러노핫다。그리하야 去二月 總選擧때에는 共產主義者는 社會主義者를 돕고 社會主義者는 산듸칼리스트를 돕는等 左翼諸派는 一體가되여 共同의敵 右翼諸黨에 應戰한結果 그와가튼 大勝利를 엇게 되엿든것이엿다。(完)

(寫眞=十月革命當時=右는 바르셀로나 空中에서 俯瞰한 政府軍의 占領된 카탈로니아革命軍根據地)

팟쇼對人民戰線 歐洲諸國對立?

西班牙叛亂을契機로

【倫敦二十四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內亂鎭定에 關하야 英佛兩國政府에 援助를 懇請하엿기 때문에 內亂은 方今國際問題化하게되엿는데 佛首相은 로카르노豫備會談出席次 倫敦에到着하자 本國政府에 對하야 西班牙政府에 軍用機二十五臺 大砲彈藥等을 急送하라는 指令을 發하엿다고 傳한다 果是 이것이 事實이라면 西班牙右翼叛亂軍側에서도 當然 이에對抗하야 팟시스트諸國 政府에 對하야 支持를要望할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야 西班牙內亂은 드디어 팟시스트와 人民戰線의 國際的抗爭에 轉化할 形勢가 濃厚하게되엿다

墺政治犯釋放開始

【維也納二十三日發同盟】二十二日午前 墺太利大統領 미크라스氏署名下에 國內나치스政治犯人에對한 大赦令이 發布되엿는데 同日正午부터 即時 一部犯人의 釋放을 開始하얏다 이미 釋放된者 中에는元維也納地方 나치스黨指導者 가벨르트大尉를 爲始하야 元나치스領袖多數가 잇섯다 釋放은 아직繼行될터인데 今回의 大赦令에 依한 犯人釋放은 總數一萬에 達할모양이다

閣議決定事項

【東京電話同盟】
一、聘用된官吏待遇者에 關한 官制中改正件
一、外交官、領事官赴任及 賜暇規定中改正件
一、陸軍補充令中改正件
一、陸軍工科學校令中改正件
一、陸軍戰令中改正件
一、陸軍造兵廠令中改正令
一、朝鮮地方官官制中改正件
一、『시리아及 레바논』의生產인 物品輸入稅率에關한件
一、朝鮮殖產銀行令中改正件

豫審期間短縮코 檢査監察制度新設

但 司法警察의 權限은擴大乎

司法制度刷新基本案

【東京電話同盟】司法制度刷新의 基本案을 엇기爲하야 昨年十二月 司法省內에 設置된 司法制度調查會(會長司法大臣)에 對해서는
一、民事訴訟 促進에關한件
一、豫審制度 改善에關한件
一、未決拘留改善에關한件
의三件을 諮問하엿는데 爲先民事訴訟促進과 豫審制度改善에 關한 件을 先議하기로되어 前者는 池田大審院長 後者는 光行檢事總長을 委員長으로한 小委員會에 附託하야 審議를 進行하고잇다 그런데 豫審制度의改善은 豫審制度의 合理化를 圖하고 人權을 尊重함으로써 究局의 目的으로 하는것인데 前者의 特別議會에서 司法警察官吏에 對해서는 身體를 拘束할 權限을 與하지안헛슴에도 不拘하고 犯罪嫌疑가 잇는者에 對해서는 承諾留置의 形式을 取하고 無制限으로 自由를 拘束하고잇다 그러나 警察에 拘留되는것을스스로 快히 承諾하는者가 잇스리라고는 常識上 判斷할수업스므로 現在警察에서 行하고잇는 身體留置는結局 法律에 基하지아니한 非合法的行爲이다 따라서 現內閣은 合法的行爲로써 人權을 保護하도록 檢察에 對하야 一定한 拘留權을 與하고 ... 如左한 趣旨의 改正案을 作成하기로 되엇다
一、司法警察官에 對하야 拘留權을 與할것
二、檢事에 對하야 拘留權을 與할것
三、檢察官에 對하야 拘束力을 가지게할것
四、起訴猶豫處分을 愼重히하고 檢事監察制度를 新設할것
이러하므로 本法이 實施되면 不當拘留의 弊는 一掃되는同時에 檢察官의 指導精神에도 當然一大轉換을 招來하야 檢察權의 運用은 顯著히 明朗化할것으로 보인다

八面鋒

◇敗將陳濟棠君、國民政府工業視察員이라는名目下에 外遊케 되리라고。
◇그中에도 軍需工業視察이 主要目的이라니 들아와서는 對蔣一戰을 다시하랴함인가。
◇西歐平和再建에는 獨伊兩國의 參加가 絕對로必要하다고。
◇平和의要素라고하기前에 危險의要素를 먼저除하자는말。
◇京電賃金改正에 永登浦를除外햇다고 住民들이憤慨。
◇永登浦는그만두고、府民이憤慨하야 그만치利益을보던일이 잇섯는가、結局은 京電의電車線路延長을促進식힐뿐。
◇利益이라하면 電車賃을내는데신에 것는일이 減하는것쯤。
◇大京城의 名譽이루리신 大京電의收益이 는다는것을 알면고만。

佛政府援助說에 西班牙右派憤激

【안다이=西佛國境=二十三日發同盟】當地在留의西班牙人中 右翼派는 佛國政府가 西班牙政府의 要請을 容諾하고 內亂鎭定援助에 進出하엿다는 報道가 事實이라면 佛國政府는 西班牙內政에 干涉하는것이 明白하야 國民主義者이라고 憤激하고잇다 外人들은 모다 避難하고 外國軍艦來着을 一刻千秋로 苦待하고잇다

革命軍首都包圍코 糧道斷絕?

【판그로나=北部西班牙=二十四日發同盟】叛亂軍北軍司令모라將軍은 二十四日 根據地판그로나를 出發하야 前線에 出動하얏다는데 이미 北軍先鋒은 마드리드市를 距한八十키로의 地點까지 進出하엿다 모라將軍은 南軍首領프랑코將軍과 呼應하야 漸次 首都包圍의 態勢를 取하야 食糧供給의道를 끈허 政府軍을 困厄시킬 方針이라고한다

復興騷動淸算코 自由精神을回復

米共和黨大統領候補랜든氏 施政方針을闡明

【토피카=캔사스州=二十三日發同盟】캔사스州知事 랜든氏는 二十三日 午後九時 共和黨大統領候補指名을 正式으로 受諾하엿다 랜든氏는 受諾과同時에 聲明書를 發表하고 如左한 施政方針을 闡明하엿다

復興騷動을 淸算하고 米國民의 自由精神을 回復할時期가 到來하엿다 現政府下의不斷의 威嚇行動을 紛砕하고 過度의失費 苛斂誅求를 排擊하며 放縱 또는 不確實한 通貨政策과 獨占的 統制策을打破치 안흐면안된다 國際關係에 對處하기爲해 모든機會를 利用하야 正義와人道로써 平和의 促進에努力하고 國民으로부터 自主的判斷의 自由를빼앗고 國民을 戰爭의 渦中에投하는 企圖에는 絕對로 反對한다

로카르노豫備會商 共同콤뮤니케 獨政府에手交

【伯林二十四日發同盟】伯林駐箚佛國大使 퐁세氏 白耳義大使다비뇽氏、英國大使代理 뉴-튼氏는 各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二十四日午前 함께 伯林獨逸外務省을 訪問하고 外相代理뷜로氏에게 對하야 로카르노豫備會商의 共同콤뮤니케를 手交하고 近近 開催될 五國會商에 獨逸政府의 參加를 要請하엿다 이에 對하야 되외호프博士는 英、佛、白、三國政府의 努力을 謝하고 獨逸政府의 意向을 追後 闡明하겟다고 答하엿다

廣東의軍、政、黨 全部中央서支配

【廣東二十四日發同盟】財政廳을 手中에 너흔 鄒琳、宋子良兩氏는 金融整理制度改革을 斷行코 廣東省市兩銀行도 二、三日中에 强制接收할터이오 또 中央側의 省市兩政府에 對한 徹底的改革을 進捗하야 林雲陔、劉紀文等의失脚은 單히 時間問題가 되엿다 또 藍衣社의 進出에 伴하야 黨部의 權威도 失墜하야 余漢謀氏는 單히 第四路軍總司令 綏靖主任으로 軍權을 保持할뿐이오 蔣介石氏는 廣東의 陸海空軍에對하야 이미 中央集權의 손을뻐처 겨우 二十機를 廣州에 남기는外 廣東空軍全部를 武漢成都에 分駐케하기로되엇다 二十四日 來粵한 陳策、陳李兩氏는 다시 廣東、廣西의 全要塞를 接收할터로 이리하야 廣東軍은 結局 分離離間케 될터이니 中央側의 손으로 黨、政、軍의 三方面에 亘한 割據獨立性의 徹底的淸算工作이 進行되고잇다

朝鮮電力總會 任員增員을決定

【大阪電話同盟】朝鮮電力에서는 二十四日大阪日東本社에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야 左記諸議案을 決定하엿다
一、南朝鮮水力會社(資本金二百五十萬圓拂入百三十七萬五千圓)의全株式買收의件
一、本社를大田으로부터 京城에 移轉할件
一、取締役監查役增員의結果 左와如히 就任
專務取締役 井上淸
取締役 佐久間權次郎
同 三木喜延
監查役 靑八鋪百道

革命情勢調查를 駐佛大使에電命

【東京電話同盟】西班牙의 叛亂勃發以來 이미 一週間을 經過하엿스나 一枚의 公電이 外務省에 到着하엿슬뿐이다 事態의 推移는 全然 判明되지안코 在留日本人三十名의 生命財產의 安否도 念慮되게되엿스므로 有田外相은 二十四日 特히 佐藤駐佛大使에게 訓令하야 西班牙叛亂事情을 調查報告케 하는同時에 矢野公使와의사이에 可及的 連絡을 取하야 在留日本人의 保護에 萬全을 期하도록하엿다

日濠會商에 對한 日本政府의 態度

【멜보른二十三日發同盟】濠洲政府首相과 라이온스氏가 現狀을 基礎로 日濠會商 再開를 期待하고 이것을 發表하엿는데 日本政府는 交涉再開에 關한 訓令을 村井 시드니總領事에게 發하고 交涉再開에 對하야 一般情勢를 靜觀하고 會商再開에 關한 濠洲政府當局의 誠意를 充分히 凝視한後 再開에 對하야 行하라는 指令을 發하엿다 濠洲政府는 이미 今年度 羊毛出廻期를 바더 牧羊業者의 焦慮는 推察하고도 남음이잇스므로 이에 對한 濠洲政府의 對策은 一面 日濠會商再開를 要望하고잇는 日本政府는 이동안의 事情에 關하야 特別嚴重警戒的態度를 取하고 現狀을 基礎로 한 再開會商에서는 爲先濠洲側은
一、日濠通商關係의 實質에 鑑하야 日本商品의 輸入을 數量的으로 制限하는 輸入特許制를 廢止하고
一、高度의 對日關稅를 撤回하고 적어도 英本國에 與하는特惠關稅와 一般關稅의 中間稅率을 許容할것
의 根本的態度를 決定하지안흐면 前途에 期待를 가질수업다고 强硬態度로써 濠洲政府의 具體案提示를 要求中이다

삼호새백분 三好刷白粉
綠陰에 어울니는 男粧美는
小島의가치 生氣잇고 綠陰과가치 香氣롭고 꼿과도가치 아름다운
지금！流行하는 柔軟化粧은 맥시나고 손쉬운 三好刷白粉으로
三好煉白粉 三好크림 三好刷白粉 三好化粧水 三府園煉白粉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頰紅 三好포마-드 三好口紅 코리아石鹼(고리아) 三一石鹼 鶴林石鹼
製造元 三好化粧品株式會社 京城府壽松町一五九 電光⑥一七二七 振京一五九五八

專賣特許 新製品
얌마-動力用脫穀機
稻麥兼用
能率絕大 機械堅牢 選別優秀 使用簡易
型錄進呈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人生最大의悲劇
父母를차저 五十年 哀切한 이들의 呼訴
本人의生父李某는本人四歲時(距今四十七年)에身邊事情으로本人을버리고不知去處가되신後故崔某氏의收養을밧어崔姓을行世하여오든바本人十三歲時에養父母마저別世하고보니天倫의情을... 照會하실곳은左記兩處
滿洲國奉天本會町一七 崔振瑀
京城府光化門通遞信局工務課電氣檢查係 崔吉泳
朝鮮新聞支社

瓦斯入電球
朝鮮唯一의大工場에서 產出하는優良鮮產品
林電球製作所
京城府新堂町四○九 電本②五二六一番
全朝鮮特約店募集

漁具
楊上網 縣釣網 捕鳥網
漁具卸商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2)四三九〇 振替京城一二壹五六
定價表進呈

納凉氣分滿溢한
朝鮮料理 賞春園
喧騷한都會를떠나山水와凉風의佳境을차저東小門外로!
東小門外 賞春園 電光二大六四番

北部에는豪雨氣配 南部에는水害念慮

이번降雨는全域的으로均霑되는慈雨

京、仁과平壤、釜山엔降雨中

이십사일밤부터 시작한비는 경성을중심으로 오는곳도잇고 개인곳도잇스나 이십오일아침오전 여섯시현재의우량은 다음과갓다

中江鎭 三〇 新義州 三〇 平壤 三 仁川 三五 京城 四一 雄基 四 城津 五 元山 一八 江陵 六 秋風嶺 一

그리고 경성 인천 원산과 부산지방은 아직도 강우중인데 인천관측소의 보고에의하면 중부이북은 호우가올듯하고 농작물의형편으로보면 중부와북부에서는 아직도 비가더와야하겟다한다 그러나 남조선방면에는 이보다 더비가오면 도리어 수해가날 넘녀가잇다하며 이번비는 전조선에 보편적인 자우(慈雨)라한다

各地의天氣(午前六時) 中江鎭曇 大邱曇 新義州曇 釜山小雨 平壤雨 下關曇 仁川雨 大阪晴 京城曇 東京晴 全州曇 天津晴 木浦曇 靑島曇 群山曇 上海曇 雄基霧 新京晴 城津霧 奉天晴 元山雨 秋風嶺口晴 江陵曇 大連晴

苦待하든生命水 旱魃地에沛然!

아직도雨量은不足

【兼二浦】 그동안 오랫 여일을두고 한발이계속하야 농작물에피해가만허 수일내로 비가 오지안흐면 전부고사하여 버릴 염려가잇든중 이십사일오전이시경부터 낫까지 계속하여오는호우로 전작(田作)은 얼마쯤도움이되엿다하며 일반농민은 크게깃버한다

【沙里院】 고대하고 고대하든비는 지난이십사일새벽부터내리여 당일저녁까지 십미리가왓는데 아직도 전곡(田穀)에는흡족하나논에는 부족하다하며지금도우긔(雨氣)가 가득하야 당지의농민들은 비로소 숨을쉬게되엿다한다

【定州】 월여를두고 한발이계속하여 농가의 근심이되여잇든 정주지방은 지난이십사일오전사시부터 나리는비에 전답에 우량이 흡족하여 풍년을 예상한농민들은 깁뻐하여마지아니한다

【郭山】 이곳에서는 그동안 한재가 심하여 산야에 초목까지도 마르게되여 인심이 매우 흉흉하든중 지난이십사일 아침부터 내리는 비는계속하여 폭주하는중 아프로도 더계속하여 내릴듯한데 전곡(田穀)은 그동안가물에 만흔손해가잇섯스나 수답은 아모 지장업시 풍년을기약하게되엿다

【金浦】 김포지방 일대에는 금년 농번긔에잇서서 우량이 부족하야 천수답은 전부 이앙치 못하고 이앙한곳도 대부분은 고사상태에 빠저잇는중 근일에와서 어친데덥친격으로 도열병이발생하야 일반농가의인심은 극도로 흉흉하든중 지난이십사일오전칠시부터 일적천금의희우가 나리기시작하야 지금까지 계속중인바 이앙답에는 우량이 흡족하야 농가의인심은저윽히완화가 되엿다한다

【元山】 긔부원산지방은오래동안가물다가 지난이십이일오후열시부터 비가나리기 시작하야 익일오후두시까지에 이십삼미리가 와다한후 긔부하얏거니와 비는일시끈첫다가 다시 오기시작하야 이십사일 오후네시도 오고잇는데 그동안의강우량(降雨量)을 원산측후소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사십오미리가왓다

【鎭興】 비비하고 비아니오면 죽엄을 기달일수밧게 업스리만큼 한발과서풍이 너무혹하야 이앙(移秧)을 사할밧게 못할뿐만아니라 잡곡이 모다말나죽고심지어 정호수(井戶水)와룡흥강(龍興江)상류가말나서 물이 나려오지안흠으로 연안일대에잇는 주민들은 음료수의결핍으로 대곤난을바더오든중 아프로 만여가물과 갈흥이 계속된다면 농작물을보안이아니라 사람이 타서 죽을형편이더니 지난 이십이일밤부터 우뢰소리와함께 비는나리기시작하여 아직도 계속중이라는데 비를갈망하든 해지방주민들은 실로개생의긔븜을 찻는듯이 매우기뻐하는중이라고한다

【谷山】 곡부곡산은 장기한발로 전작물까지 고사상태에 빠지게되얏거니와 지난이십사일 [illegible] 면작으로 [illegible] 군청에 회합하야 한해대책타합회(旱害對策打合會)를 지 열엇는데 이십사일아침 네시사십분부터 내리기시작한비는 오랫동안이지나도록 계속중인데 일반은 수미를견게하고 도작(?)에 [illegible] 상하다고한다

代用作物도發芽 田穀도渴症解消

이번비로 한발지대의 농작물은 대부분소생케되엿는데 이때문에 논에는 물도거되여 벼도자랄것은 물론 그것보다도그간 크게염려되든 전곡(田穀)이그동안 자라지못하다가 잇지에 생기를얻게되엿다고 또모를 심으지못하엿든논에 심을 대용작물도이번비에 발아(發芽)가 잘될것으로 한발지대의 농민에게는 얼마간 도움이 되나 농가는 얼마간 도움이 된다 농림국 산본(山本)과사는 다음과 가리 말한다

이미 이앙이 안된곳은 다시 생각할여지가업고 문제는 전곡과 또 대용작물을 심으랴든것이 잘되기나 바라는수밧게 업섯는데 이번비에 일반전곡과 대용작물은 녀러어서 잘될것이다 그러고 비는 아직 부족한터인데 좀더와야 수전에는 올이 좋을터이다

물飢饉鎭南浦에도 一滴千金의甘雨

雨量은적으나萬穀은蘇生

【鎭南浦】 년래에드문심한 한발로 음료수까지 큰곤난을 당하고잇는 진남포에는 작이십사일 오전세시부터 우뢰찬뇌성벽력과 함께 한가지로 일적천금의비는 나리기시작하여 아침아홉시경에 끄첫는데 우량은겨우 제일수원지에 일미리 제이수원지에 일미리 진남포부내에 약확미리삼밧게되지안허 수원지에는 아직별로큰 영향이업다고한다 그나마오래간만에 맛나는비빨이라 농작물은 생기가 조흠도는모양이다

甘雨를 團欒히맛고 (今日 太平通에서)

第七列車의火夫가 線路우에서殺人

危急한畜牛를救해낸老人을

廿四日午後土城驛附近에서

【開城支局電話】 지난이십사일오후 다섯시경에 제칠렬차 『노조미』가 토성(土城)역으로부터북쪽오십키로의 지점을 통과할때에 그철로부근에 잇든유인섭(兪仁燮)의소(畜牛)가 렬차의 소리에 놀내서 긔차선로에 뛰여들엇다 이를본 개풍군서면 개성리(開豐郡西面開城里)일백사십번지 강형범(姜炯範)(六三)은 곳그소를 구하여내고 도렬자긔관사가 급정거를 하엿는데 화부(火夫)한수득(韓壽得)은 렬차로부터 내려와서 전긔강형범을붓잡고이소가 그대의소가아니냐함으로 아니라하매 닷자곳자로 강형범의 가슴을 주여질르고 발길로차서 혼도하는것을 보고도 그대로열차는 떠나서 북행하고말엇스며 전긔 강형범은 그자리에서이내 죽어버렷다한다 급보를접한 개성경찰서에서는 박사법주임이충 전부장과 공의를대동하고 이십오일새벽에 현장에 출장하엿는데 사건의전말이 어찌나 될는지 엽반은 매우주목하고잇다

女給自殺未遂

이십사일 오후 시내 림정(林町)삼십칠번지 천향루(千香樓)의 녀급 『다랑의『칼코』 남은 처삼동양(東洋)구라부녀급 손남례(孫南禮)(二一)은 다량의 『칼모친』을먹고 자살하려든것을 잡안사람이 발견하고 부민병원에 입원치료중으로 생명에는별 반관계업다고한다 원인은 불명이나 염세증으로 세상을비관한 결과가아닌가한다

개일듯개일듯해도 비는當分間繼續

黃河下流의低氣壓으로

【仁川觀測所發表】 인천관측소발표 ‖개일듯말듯 이십사일 오후가 터서는 제법개일듯하야 사람으로하여금 쭉양의 희망을 애갑케하드니 야반에는 도다시 큰 비소리로 혼들어 깨히든잠을 오고 이십오일인 금일오후에야 르기까지 적긔는역시 깁가는사 람의 마음마조리게하고잇다는 작일보도한경긔도(京畿道)소 청도(小靑島)부근의 소저긔압은 업서지고 황하(黃河)하류에 발생한황해시십팔미리의 저긔압과 북만주(北滿洲)의 발생한 칠백 사십육미리의 저긔압이 각지에비를나리게한것으로 이로써 조선도 본격적장마철에드는것이라고 해석되며 이십오일오전여섯시까지의 조선각지의 강우량은 다음과갓다

◇**各地雨量**

京城四一粍 仁川三五粍 中江鎭三〇粍 元山一八粍 新義州一〇粍 江陵六粍 城津五粍 平壤三粍 秋風嶺一粍 雄基四粍 廣州(京畿)三二粍 加平四四粍 金化七五粍 信川四七粍 慈城三三粍 唐津七三粍 水原七三粍 溫井里三九粍

禁止는안할方針

朝鮮映畫의上映을

大阪府保安課의意嚮

대판(大阪)부내에서 상영하던조선의 영화배급사 삼영사(三映社)에서 조선으로부터 홍길동전(洪吉童傳)을갓다가 지난십오일부터 신세계(新世界)빠ー구극장에서 상영하라하든중 지난십사일에 돌연소관 경찰서(境察署)에서 전긔홍길동전의상영을 허가치아니하엿스므로 가진사람들은 지난이십삼일 성부민관에 모히서 그 진상을 큰분명히 하라는동시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래조선영화계에 다대한영향을 끼칠뿐아니나 그대책을 강구하기로한것은 이미보도한바이다 그런데 본사에서도 그진상을 대판지국(大阪支局)에명령하야 조사하게 하엿든바 대개다음과가튼 내용이것이 판명되엿다 대판에잇는 영화배급사 삼영사(三映社)가 조선영화홍길동전을갓다가 대판지내에서 일주일동안상영할예정이엿는데갑작이 대판부특고과내선계(特高課內鮮係)에서 저번대판부보안과라함은 오과(?)는 계장 길전경부(吉田警部)의 도단행위로 돌연히상영 금지하엿는데 그리유는 동화를 금지하엿는데 그리유는 동화정책(同化政策)상으로보아서 조치안타는것이라는데 대판부보안과(保安課)를비롯하야 관계각관청에서는 내선계장 길전경부의 독단행위에대하야 매우분개하는 동시에 절대로 조선영화의상영을 금지하는등의 몰상식한처사는 도리여 융화할수업다고하야 그리하야 상영금지문제는 일개내선계장의 인식부족으로 말미암아 돌발된것임이 판명되엿고 압흐로는 절대로 이러한일이업슬것도 이로써 판명되엿다한다

되ㅅ마루에서떠러저 腦震蕩으로重態

건너房女子와言爭끄테逢變

시내신설정(新設町)백삼십칠번지의이십일호에사는 조원작(趙元作)의처 박정자(朴貞子)(三二)는 지가업고 경솔한녀자의 표본이다 시내동대문서에서 상해혐의(傷害嫌疑)로 엇중한조사를 밧고잇다 ─이십사날 저녁여섯시쯤되여 태잔(朴泰讚)의처 강관옥(姜官玉)(二八)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하다가 분에넘치든지 전긔 강녀를 됫마루에서 밀처떨아치로 나가잡바지게한바람에 인사불성이되여곳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밧고잇스나뇌진탕(腦震蕩)으로 생명이위독 하다고한다

嫉妬에타는本夫가 안해와人妻를刺殺

그칼로自己도배를갈러自殺

여름밤、鎭南浦의慘事

【鎭南浦支局電話】 날은경을고、먹울것은업고 살기가어려운사람들이 그날버리그날살면서도 애욕(愛慾)은 배암과가티 질투에타는칼날로 세목숨이끈허진 여름밤의참극이 진남포에잇다

부내비석리이백사십사번지 김재환(金在煥)은 지난이십사일오후아홉시반경 자긔집에서 그안해강적산(姜赤山)(二三)을 식칼로 찔러죽이고 그칼로 그이웃에사는 홍송학의안해 곽귀영(二三)을 찔러서 즉사케하엿고 도라오는 칼날로 자긔의배를갈라서 마침내자살하여버렷다 이징글징글한 참극의원인을듣건대 전긔김재환은 로동자로서 생활이곤난하야 원적지강서(江西)로부터 진남포에나와서 그날버리 그날살이를 오다가 요새는 버리할곳도 변변치못하야 그처자를 진남포에두고 자긔만혼자 지난륙월초순경에 평북룡천(龍川)에잇는 어느염전(鹽田)으로 버리를나갓스나 그곳도별로 신통치못하야지난이십이일에 다시 처자가잇는 진남포를차저왓다

그런데 그안해강적산도 삼본조(森本組)의인부로서 로동을하엿는데 그태도가넘우도 쌀쌀해진것을 분개한남편김재환은 정부가잇느냐고 힐문하엿스나 그대답조차 친절치못하엿다 그러나모든것을 참고서 지내든중지난 이십사일에는 우연히 그안해의 주머니속에서 연문(戀文)을 발견하엿는데 그내용은 이십삼일밤에 어데로든지 도망하자는 정부의편지인데 물론성명은 업섯다 발견한 남편은 그정부의 성명을추궁하엿스나 오직가르쳐주지않고 ─그런곳에서 로동하는 남자이요 성명은 몰은다하며 이웃집에사는 홍송학의안해 곽귀영이가 그사내를 잘안다함으로 곽씨를불러다가 문초하엿스나 이내대주지아니하엿다 질투에타는 김재환은 모든것을 각오하고식칼을들어서 먼저그안해를찔러죽이고 다라나는곽귀영마자 죽이고나서 그칼로자긔의 배를갈라 자살하고말엇다는것이라한다

夫婦間不和로 投江自殺未遂

이십사일 오후령시 한강인도교 둘재『피어ー』에서어떤 젊은여자가 처마를뒤집어쓰고 물로뛰여드는것을 때마침지나가든 배사공 최태근(崔泰根)(?)이 구하여 내엇는데 그는시내 [illegible] 리창학(李昌學)(二〇)의처 [illegible] 두명어 달려드러 마음을 [illegible] 그는부내공로로 [illegible] 엇스나 [illegible] 가난한것과 남편과 의가 맛지 못한것을 비관하고죽으려든것이라한다●

中國人密偵七名 清津地方法院에送致

廿五日、朝鮮軍司令部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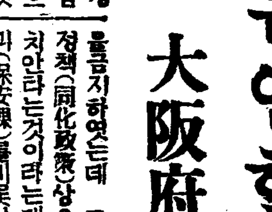
【朝鮮軍司令部二十五日午前九時發表】 ‖지난봄에 청진(淸津)주재 중국령사 손병건(孫秉乾)과밋 그일당인 자칭 그과원 양진오(楊振五) 리영서(李映西) 진긔수(陳其洙) 예화선(倪華善)(?) 소사 석홍긔(石鴻基)와밋 청진에서 라범영(?)하는 리원홍(李源洪)등 일곱명에대하여는 관계당국에서 신중히조사한결과 양수서류와 밋범인들의 공술에 의하여 일본군사 긔밀사항을 탐지하고 이것을 자긔들의 본국 각방면에 보고하고 잇든 여러가지의 확증을 엇기에 이르럿다 그래서 이달이십오일 일긴서류와함께 청진지방법원으로 넘기엿다 그리고 그들의직업과 성명은 다음과갓다

◆自稱駐淸津中華民國領事 孫秉乾(三八)
◆自稱淸津中國領事館主事 楊振五(三九)
◆同上 李映西(三五)
◆自稱淸津中國領事館通譯兼書記 陳其洙(三五)
◆自稱淸津中華民國外交部僱員 倪尉庭(三一)
◆淸津中國領事館小使 石鴻基(三二)
◆淸津府明治町一四의一〇號 理髮業 李源洪(三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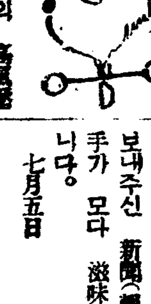
清凉里線電車 東廟압서不通

約二十分만에復舊

이십오일아침부터 내리든비는오후한시경부터 폭우로되여 거이 한시간동안이나 퍼부어 시내에는 처처에물이넘치고 청계천은 물이갓득차서 싀원스럽게 흘럿다 이가러 폭우가쏘다지며 동묘(東廟)압선로가 물에만히잠기어 두시 대문밧 청량리선전차는 불통되엿다 이십분후에야 겨우 [illegible] 통행하엿다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鍾路 和平堂藥房 [illegible]



天氣予報

概況 七六二미리의 高氣壓은 日本本州의 南東海上으로부터 關西地方을거처 朝鮮半島에퍼지고잇다 昨日 日本海의 北東岸에잇섯든 颱風은 北海道北部에잇섯든 其勢力은 衰弱하여젓다 七四八미리의低氣壓은 中國黃河下流에 잇스며 北滿州도低氣壓이낫다 淸州는曇이며 朝鮮은흐리고 곳곳降雨가잇다 日本內地도 흐리고잇다 明日도흐릴터이며 곳곳降雨가잇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흐리며 때때비가나린다 明日도 가트리다

昨日 最高	二七度二
最低	二一度五
今日 最低	二二度
正午	二四度六

運動消息

中等野球南天順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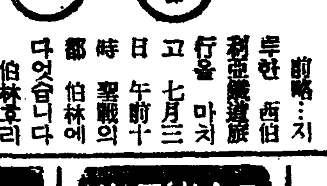
大每主催의 第二十二回 甲子園中等野球朝鮮中部豫選準決勝의 京城商業對京城師範、仁川商業對善隣商業의 二試合은 廿五日午後二時부터 京城球場에서 擧行할 豫定이든바 降雨로 因하야 明二十六日로 延期되엿다

全朝鮮軟式野球 準準決勝戰績

朝鮮軟式野球聯盟主催의 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軟式野球大會京城豫選準準決勝은 廿一日과廿三日에 龍山球場에서 擧行한바 戰績은 다음과갓다

遞信	1000030	1
鐵道	0000000	0
商銀	0000300	0
善友	0000100	0
京電	2030010	0
FD	0000000	0

3…19…09…0.0…2



擧國的歡迎

伯林에서

鄭殷鉉第一信

前略…지루한 西伯利亞鐵道旅行을 마치고 七月三日午前十時 聖戰의 都伯林에 다어슴니다

伯林에 드리히街驛에서 獨逸國民들의 歡呼聲을 들을때 참으로 伯林까지온 보람이잇섯습니다 그들은 自己네들의 손을 歡迎할줄안다는것을 잘알으켜주고 그것으로서 國民性을 남으로하여금 배우게하엿습니다 驛에서나 市街에서나 다라나는 自動車 電車 그리고 有名한 彫刻像全部가 뜻잇는 歡迎을하여주엇습니다 우리들 陸上、蹴球、拳鬪、籠球全部가 아울러 伯林市長에게 歡迎辭를 밧고 世界젊은이들의 縮圖인 올림픽村(競技場에서 自動車로 三十分間)에 드러가 旅裝을 풀엇습니다 이곳서 우리들 一行 人이 손을가티하야 伯林하늘과 故國을 向하야 우리들속에 잠겨잇는 高句麗의 健全한 意氣를 다시 한번 마음것 이곳에서 퍼보겟다는 盟誓를 하엿습니다 우리들은 運動競技各部門에 나노아잇스나 스포ー츠의 根本精神과 모임이라는 뜻을 가리 세우고 스포ー츠의 힘보다 더큰 힘을合하야 가지고 넓은마당에서 마음것활개치며 微妙한技術보다도 씩씩한氣像을發하야 勝負보다도 高潔한 運動精神으로서 列國選手에게 對하려합니다 故鄕에게신 여러先生님께 實報를通하야 人事를 드려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七選手의 活躍狀況을 힘닷는데까지는 通信하려합니다 보내주신 新聞(朝鮮日報)은 選手가 모다 滋味잇게 읽고잇습니다.

七月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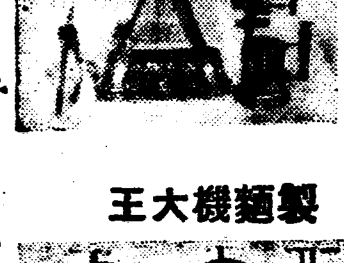
韓國代表 李奎煥短信

우리一行은 지난三日 獨逸의 擧國的歡迎속에 伯林에到着하엿습니다 即時 伯林市長의招待宴에臨하엿다가 伯林市街에서 自動車로 約一時間걸리는 올림픽村에投宿하엿습니다 우리는이곳서 獨逸健兒들과대리ー를 相對로 連日練習을 하고잇습니다 이번大會의參加國은 약二(?)十八個國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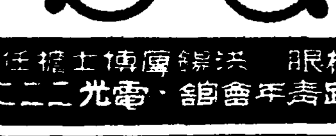
七月六日 올림픽村에서

運動界人事

◆朴忠根氏(朝鮮中等野球聯盟記者)이번釜山放送局에轉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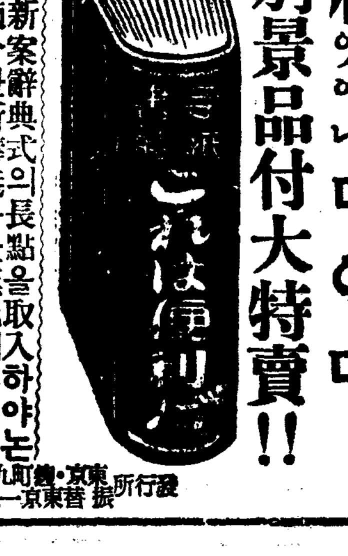
ス ピ ー ド 膨脹機
(五合米가八升으로되는)
中島式製粉機販賣店
特價販賣
돈버리大王

製麵機大王

新案特許 長谷部式製麵機
京城府元町一丁目百十七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一七・振替京城一八二三四
ライト發動機鮮滿總發賣元

醫學堂眼鏡店

檢眼 無料
檢眼 洪錫厚 擔任技士
京城鐘路壽年會館・電光 二二八番
醫專病院眼科指定
型錄進呈

旗 カメヤ旗店
京城黃金町五丁目
國旗 萬國旗 校旗 優勝旗 會旗 宣傳旗 幟幕
カタログ進呈

無代進呈

實物縮寫
流行型腕卷クロー厶側時計形總鍍針指針正確
大特價 壹圓四拾錢
送料二十錢代金引換は八ガキ申込次第送共一圓七十五錢で急送す
●本書は手紙講習會が十數年苦心の結果編纂せられたる最新式一考案の理想的手紙講義録で本書は手紙の下手な人が讀めば面白い樣に書ける手紙の法則△日用文△初步文△手紙文△口語文△候文△男女手紙の書き方と見本△其他凡ゆる手紙の文例を掲げて親切に講述しあれば利用法は此上なき無比の寶典。
大景品 『これは便利』朝鮮日報讀者에限하야辭典을及
第二回景品附錄圖六判 字くずし辭典
額面書き方(一名代書人いらず)
體裁 縱六寸橫四寸 紙數 約八百頁
朝鮮日報讀者特別 ●定價 [illegible]
組合式과新案辭典式의長點을取入하야 新時代에適合한新講義를한無比의名著
日本一完備 手紙大寶典

便紙라면 무엇이나 다안다 特別景品付大特賣!!
發行所 東京・麴町九段三ノ二 振替東京一〇五四〇番 積文堂書店

金銀賣買合資會社
地方注文代金引換要先金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二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四八〇番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는誌上에入巡査試驗問題集等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番

好職業
男女老若不問自宅副業 家庭副業 [illegible] 大阪大林組生駒停留場前 博文社

好職業
不問男女 [illegible]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訥言矯正
말더듬이
不治의訥言도完治함 矯正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町九ノ六 訥言研究矯正院

引伸寫眞通信取扱
大小寫眞引伸 [illegible]

女記者 一名採用 [illegible] 京城府 [illegible] 新人文學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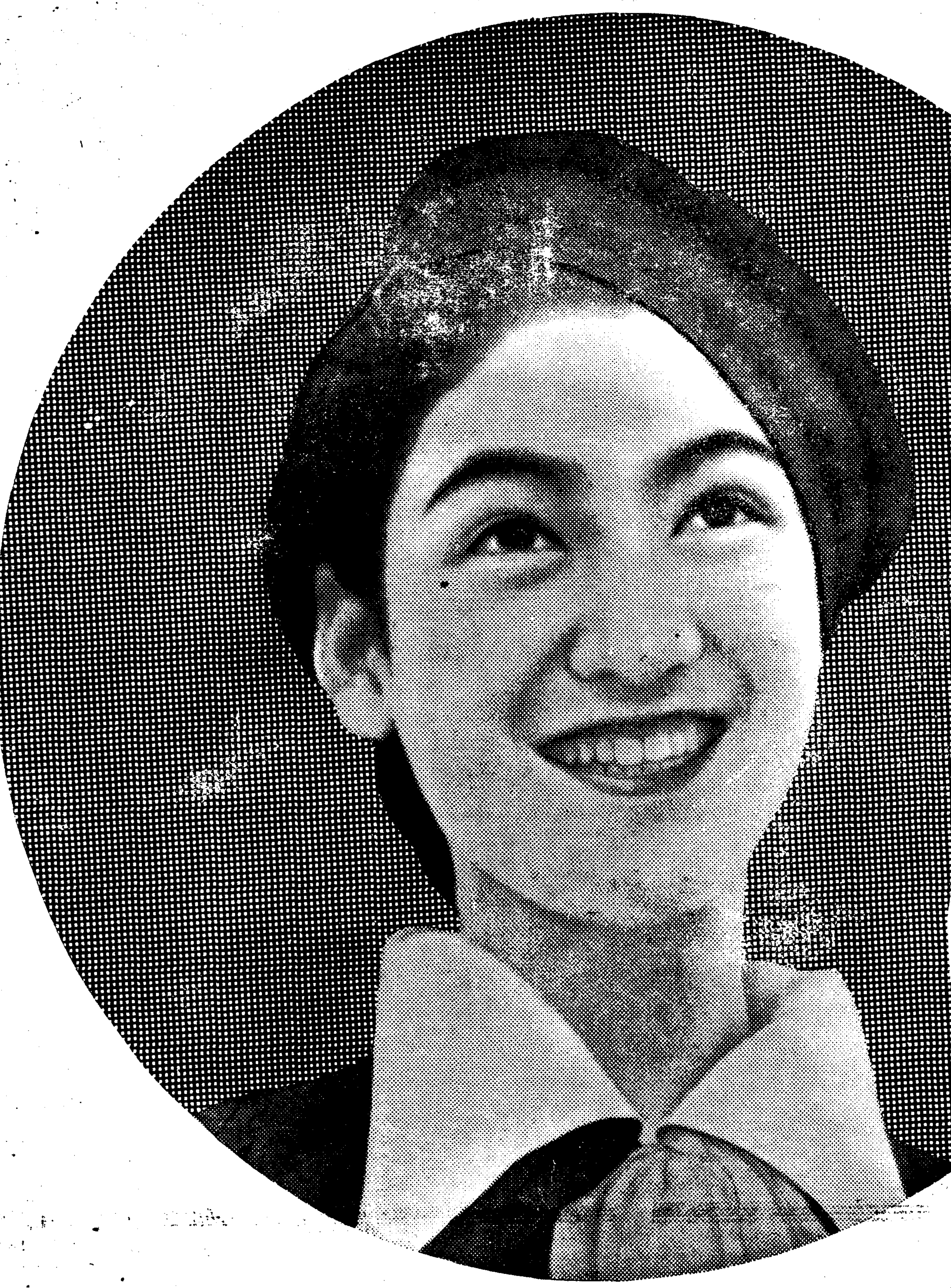
朝報案內

雨衣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다ー준비되엿습니가 雨季는일로부터옵시다 市內는電話잇는대로直時配達합니다、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及作業用各種學生男女用紳士各種レンコート
京城光熙門外 朝鮮防水布製造所
【定價表進呈】
電話本局五三〇七三番

朝鮮唯一 電醫養成

現代成功의秘業
最新最高 電氣物理醫療師
東京電醫學校創始者責任指導
本院卒業生內鮮各地試驗開業資格
夏期特別大講習生募集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じりじりするあつさ
暑熱の脅威から
貴女の美肌を完全に護る!

日ヤケ止に

바다에、山에 여름으로 [illegible]紫外線을 명지면 서[illegible]며 [illegible]합니다 女性이여 健康美를 지나서 강풍이 가되는 것 만은 注意하라! 第一 보기 흉한 것이다、벗꺼풀은 過度의 紫外線이 皮膚組織을 刺戟하야 色素를 [illegible]한 結果 이러나는 現象 이지만 [illegible]하면 色素가 皮下에 沈澱하야 永久히 기미가 되여 버릴 念慮가 잇습니다 레-도구레-무의 有效成分은 곳 皮膚에 浸透하야 紫外線의 過剩吸收를 適度히 遮斷하야 벗꺼풀을 防止하고 또 含有한 美肌素는 表皮를 漂白하야 살결을 潔白하게 하므로 青春美에 빛나는 若肌는 [illegible]당신의 것입니다。

白粉下に

땀이나고 기름끼가 잇스면 白粉이 밀립니다! 그래서 [illegible]를 가리지 안코 사람이 만흔 곳에서도 白粉을 바르는 것은 그리 [illegible] 운[illegible]이 아닙니다。化粧이 밀리는 原因은 때와 皮膚의 擴大하야 땀、기름의 過剩分泌로 白粉의 粉子가 떠러지는 것이지만 레-도구레-무를 粉白粉下地로 바르면 汗腺皮脂腺의 分泌機能을 正常히 調節하야 白粉의 粉子를 正常으로 調節하야 白粉의 粉子를 均整肌膚로 附着식히는 故로 살결을 整齊하야 化粧이 밀리는 것을 防止하고 一日中 清新한 아름다운 化粧美를 생생하게 오래 동안 保持할 수가 잇습니다。

吹出物解消

紅玉에 瑕、美人에 여드름! 아깝지 안습니까! 小野의 小町에 여드름과 부스럼이 잇다고 할까요! 그러것은 설마 업겟지요。부스럼을 防止함에는 肉類等 脂肪性의 食物을 [illegible]하고 新鮮한 野菜를 攝取하야 살결에 때가 오르지 안도록 注意하고 [illegible] 레-도구레-무를 愛用하실 것입니다。레-도구레-무의 效果는 皮膚의 新陳代謝를 促進하야 皮下에 沈澱凝固하고 잇는 過多한 過剩脂肪을 解消하야 氣孔의 生理活動을 旺盛하게 하므로 여드름 부스럼을 [illegible]히 一掃합니다。

小皺一掃

거울에 비친 얼굴에 잔주름이 보이면 임이 中年의 [illegible]입니다! 잔주름이 보이면 누구를 勿論하고 [illegible]하지 안흘 수는 업슬 것입니다!

살결 更少[illegible]에는 [illegible]로 [illegible]을 조케 하고 밤에는 반듯이 레-도구레-무를 바르고 주무십시요 레-도구레-무는 살결에 [illegible]을 給與하야 細胞의 生理機能을 旺盛히 하는 비결 때엽는 更少 有效成分을 包含하고 잇스므로 주무실 때 잔주름 [illegible]을 一掃하야 [illegible]에 [illegible]잇는 [illegible]한 美肌로 更少식힙니다!

美肌完成!

레-도구레-무는 優秀한 整肌力과 榮養効果가 잇는 純粹有効成分만을 配合하야 만드럿스므로 바르면 곳 살결에 浸透하야 皮下組織을 根本的으로 改造하야 벗꺼풀을 防止하고 여드름 부스럼 잔주름、弛緩等을 除去하야 알아 불수업스리만치 青春美에 빛나는 若肌를 만듭니다。每瓶이다 理想的 鹼化度로 精製되여 잇스므로 바르면 산뜻하게 살결에 퍼저서 爽快無比、無類의 猛烈한 效果와 相副하야 全女性 皮膚의 必需品으로서 하로라도 업서서는 아니되는 優秀整肌料의 名聲을 자랑하고 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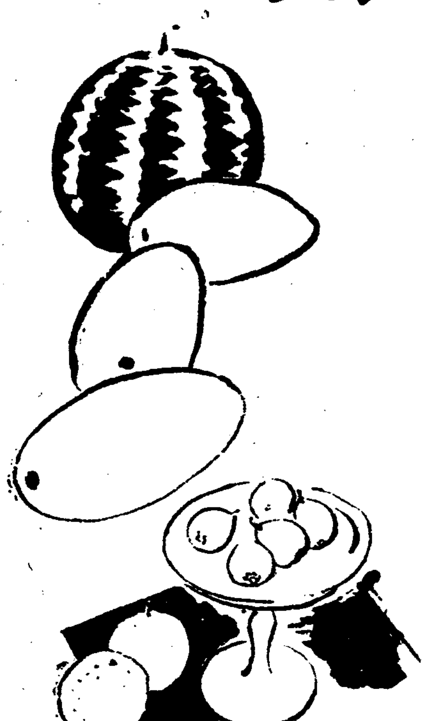
爽快한 살결의 守護神!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레-무

東京・平尾賛平商店

◇무거운거름◇

家庭



옷이고 세간이고 버려놋는 곰팡이

"장과술은그것업스면안된다고" 그러나유익한물건이다

장마철이 되야 공긔가 습하고 보면 어듸나 곰팡이가 슬기 쉽습니다. 의복, 세간, 구두, 모자에는 물론이어니와 음식에까지 떡이며 밥이며 모도 곰팡이판이 됩니다. 의복과 세간등에는 이것이 한번 슬어 노흐면 좀처럼 원빗대로 빗갈이 나지 안하야 대단히 곤난합니다. 음식으로 논지한대도 맛득지 안코 깔끔치 안하서 고만 입맛이 떨어저 버립니다. 나뿐 사람을 사회의 곰팡이라고 하오만은 과연 곰팡이란 나뿐 것입니다. 그런 나뿐 것이 번성하는 장마철에는 그것을 방어하느라고 안악네의 수고가 적지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곰팡이란 나뿐 것입니까? 도리어 리익되는 점이 잇는것은 모르십니까?

곰팡이라고 한말로 일컷는 중에도 그종류가 부지긔수로만합니다. 우선 우리눈으로 보기에도

푸른것 검은것

등가지각색이 다 만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확대경으로나겨우 자세이 보이는 물건들입니다. 조그만 실낫과 가튼것들이 무수히 얼크러저 잇습니다. 그저 어데나 제가 빠뎌 잇는데서 양분을 흡수하야 자라납니다. 말은 가죽에서나 썩은 나무에서나 어듸나 곰팡이의

진수와성찬은

걱정이업습니다 그런데그것을이 차차로생장해 나오면 커다란 자루가 생기고 그자루 끄트로 무수한 포자(胞子)가 달립니다. 실낫과 가튼 것은 본래 빗갈이업스나 그 포자로부터 푸른빗 검은빗 등의 빗갈이 이루어 집니다. 그포자란 아조조그만 알입니다. 그 알이 공긔중에서 돌아다니다가 해비업고 습긔만흔데 부려서 다시생장합니다.

×

그러니까 장마철에 곰팡이가 만흔것은 사실입니다. 아모리

걱정을하여야

소용이 업는일입니다. 그뿐더러 곰팡이란 자스타저의종류를 내노하서 전분(澱粉)을 당분(糖分)으로 변화시키어주는것으로 퍽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소화제를 곰팡이로부터 엇는동시에 다른한면으로는 된장이며 고초장이며 중요한 음식물을 곰팡이 덕에 맛보는 것입니다. 조선술이나 정종이나

모도다곰팡이

의 일종으로부터 제조되는 것입니다. 술ㅅ군들이야 말로 곰팡이가 아니고는 죽지 살지를 못하는 셈이올씨다. 면보를 맨드는것도 일종의 효모(酵母)입니다. 맥주를 맨드는 효모는 영양분이 아조 풍부해서 요사이 만히 이용되고 잇습니다. 하여튼 곰팡이는 해를 끼치는것이 업습니다. 잇더라도 결코 빡테리아와의 비교가 되지를 안습니다

×

그러나 겁나는것은 곰팡이가 피는 곳에 빡테리아가 옴을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바와가티 박테리아에는 나뿐 병을전파시키는 것이만흔 까닭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공은 공이요 죄는 죄입니다. 빡테리아의 해독을 곰팡이에게 뒤퍼씌여서는 안될 말입니다.

삼복한위더위엔 입덧도위험타

제삼긔로만 들어서면 모든것이 후회나막급

애기 밴 부인네의 입덧은 아조 가벼워서 그냥 지내가는 수도 잇지오만은 요사이 녀름 가튼때는 무거워서 생명까지 위태한수도 잇습니다. 대개는 애기를 밴지 두달쯤서부터 시작하는데 식욕이나지안코 모든 냄새가 예민하게 마치고 기운이 업고 구역이 좀나는등입니다. 백의 팔십 내지 구십은 이정도로서 치르게됩니다. 그러나 서너달이되야가지고 더 더치여 심해지는이도 업지안습니다. 그런이의 입덧은 삼긔로 나누아볼수도잇습니다.

(一) 가슴이 시원치 안하고 침이만히나와서 속이쉬마르며식후에는 잘토하고도먹고시픈것이 작구 변합니다. 뒤통이나는것은 몰론모든것이 우울하게 생각되며 변비증이일어나고 몸도야위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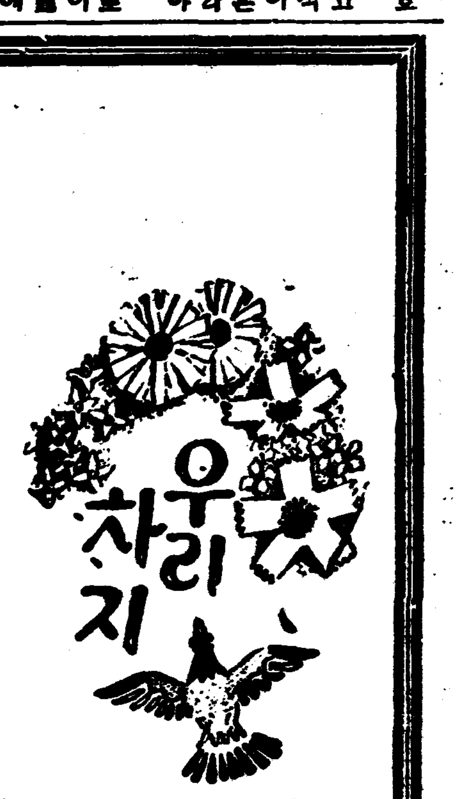
(二)먹고 안먹고간 작구 토해가다가 나중에는 담즙(膽汁)과 혈액(血液)이 석근 담즙을 토하기에 이릅니다. 변비는 계속되고 입에서 악취가 나고 숨이차고 때로 열이 오르고 오줌도별로 누지못하고 눈꺼지 부여코 끈적한 오줌을누고 또 찬땀을흘립니다.

(三)제일긔로부터 제이긔까지는 잠간 지나가는것이 보통이요 도아모리 모체고통은 심하더라도 태아의생명은 관계업는것이 그통종입니다. 그러케 제삼긔로들어서서는 모든증세가 더심해지는데 불구하고 예민하든 신경은 도리어둔해지는동시 구역질이 조금 감해지나 쥐가일어납니다 이런환자는벌서 모체며 태아며두생명을 구해내기가 어려운 환자입니다 제일긔 제이긔에서 속히 치료치안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뒤그환자는 체온이작구나리고 맥박도 일분간백오십으로부터 백륙십에이릅니다 그러다가 불구해서 딴세상으로 돌아가버리는것입니다 그러면 이외가티무서운 입덧을 어떠케예방하랴?

첫재로 대변을 잘통케할것 둘재로 잠을 잘자게할것 셋재로 자궁의 위치가 나뿌거든 곳교정하도록할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녀름에는 찬것이나 청량음료나 또는 부패한 음식물을 먹어서 속을 탈내기쉽지 안습니까? 그것이 무엇보다 위험하니 주의에 주의를 더할일입니다.

누가더엡버요?

재미만흔 미국애기들 어머니와 누나들을 졸라서 해수욕복한벌식을 어더입고서는 뉘것이제일조혼가 이러케들 서잇습니다. 어느것이던지 마음에드는것이잇거든 여러분도 그런것을 한벌사서 댁에귀여운 애기들에게 입혀가지고 시원한바다ㅅ가으로가십시요



우리 애기는 말을 잘 하지요. 그러나 나 아니면 알어듯지 못한다나요.

긔차는 칙칙 퍽퍽
전차는 냉냉
말은 어비、앙
닭은 꼬꼬
시계는 시
담배는 뿌
자동차를 본것도
뛰뛰、웅、저어기
자동차를 타자는것도
뛰뛰、웅、저어기

글ㅅ사람 김복희

童話 거울모르는사람

金相德

옛날 어느시골에서 살고잇든 농부가 서울로 구경을 왓섯습니다. 서울와서 이것저것 구경을하는데 모다 신긔한것뿐이여서 깜짝깜짝 놀래기만하엿습니다. 그중에도 거울이 어쩌케도 이상한든지 이것을 하나 사가지고 보면서 그 속에 사람잇는것을 이상스럽게생각하며 혼자조회하엿습니다.

『이거울을 시골가지고가서 동리사람들에게 구경을식혀야겟다 아니 내얼골이보이는 이상한것을 동리사람까지구경을 식혀 혼자두고보아야지?』

하며 가지고집으로 도라가서 집안사람에게 보이지안케감추두고 때때로 몰래끄내서 보고 혼자조회합니다.

어느날 농부의 부인이 남편이 무엇인지 동굴에한것을 끄내서 드려다보고 조회하면서 싱글싱글웃고잇는것을 보앗습니다. 이상히 생각하고잇다가 어느날 남편이 바테김매러 나간틈을타서 이상한것을 둔데를차저서유리가달닌 동굴안것을 끄내서보니까 이상하게도 저와가티 나희먹어보이는 저와가티생긴녀자가 보이지안켓습니까? 그래서이 부인은 벼락간 성이나서 시어머니에게로가서

『서울갓다오든디 입뿐녀자를데리고와서 숨겨두엇세요』

하며 말하엿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놀라서

『어데다가 숨겨두엇느냐』하며 물엇습니다.

『여기 숨겨두엇습니다』하고 거울을 끄내왓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울을 바다서 드려다보니까 머리가 하얏코 얼골이 쭈글쭈글생긴 할머니가 보이엿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얘야 너도딱하다 이런할멈을 데려다 무엇을 하겟다 하필 서울가서 이런늙은할멈을 데려오겟니 아마무슨일로 다른데잇는 할멈을 갓다두게지』 하며 말해주며 그런 쓸데업는 소리하지말라고 일러주엇습니다.

이때 시아버지가 드러오더니 무엇을 하느냐고하며 물엇습니다. 그래서 이이야기를 자세히 하엿드니

『그것참 이상한걸 나두좀 보자』 하며 시아버지가 드려다 보더니 껄껄웃으면서 하는말이

『입때무엇을 그리야단이야 젊은녀자도 아니고 늙은할멈도 아니고 늙은할아버지를가지고 야단야단』

하며 말하엿습니다.

그래서 모다들이상히생각햇스나 이까닭은 아는사람이 업섯습니다.

며느리가보면은 젊은녀자가잇고 시어머니가보면은 늙은할멈이 잇고 시아버지가보면은 늙은영감님이 잇서서모다들이상스럽게지냇습니다.

어느날 동리집 어린애가 와서 이거울을보고잇스니까 한손에 구슬을들고잇는 어린애가 보엿습니다. 어린애는 질검을하며 구슬을 집어갓다고 발버둥치며 울엇습니다. 그래서 어린애아버지가 누가집어갓느냐고 성이나서 뛰여오니까 거울을 내주엇습니다. 성난어린애 아버지는 거울을드려다 보니 성을잔뜩내고 처다보는 사람이잇거든요.

『나한놈을마녀먹은놈이 나갑을 때서』하며 거울을 땅에다 던저버렷습니다. 땅에떠러진 거울은 애매하게 산산조각이나고 말엇습니다. 끗

一九三六、七、一五

녀름의감촉 ③

요새 입는 옷감은 엇던것들일가?

吳淑根

우리에게반기고 희망을주고 길불을 도드는 색은 아마도명랑색(明朗色)의계통이 아닐수 업습니다. 조선은 산하(山河)가 반듯고 한류(寒流)와 난류(暖流)가 갈마들고 하늘은 개이고 땅이고요한 반도강산(半島江山)입니다. 무엇이답답해서 시검은 비조로 몸을틀려싸고잇겟습닛가 조선은결코 홍진만장(紅塵萬丈)의 만주(滿洲)벌도아니요 해무(海霧)에 찌들리는 영국(英國)도아니요 빙설(氷雪)에 잠기는 『시베리아』나 주야불분(晝夜不分)의 『오로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비출 우리의판단에맛겨 끌을때가왓습니다.

비가 주룩주룩오고날이 흐릴때 다홍치마에 연두저고리를 떨뜨리고나와 쌰멀며인네도업겟지만 또천명한여름의 석양에 그다답하고 구질머질하고 숨이 탁막히는듯한 검정두루마기를 걸치고 나오는남자도 결코엇슬것입니다. 무엇에고 정당한판단(判斷)은 자긔반성(自己反省)에서 나온 창조의식(創造意識)이아니면안되겟지요.

너무말슴이길엇습니다. 다시옷감의 염색에대해서 말슴하겟습니다. 필육을채색스로졋든데는 짜가지고 물을 드리고 여러가지혼색(混色)스로졋든것은 아조실에 물을드려가지고 졋습니다.

염색에는 보통색(普通色)과 불변색(不變色)이 잇는데 직물계(織物界)에서 불변색을견뢰색(堅牢色)이라고말합니다. 견뢰색중에도 『아닐린』염료(染料)나 류화염료(硫化染料)나 가튼것은 한용것이요 아조고급품에 쓰는 견뢰색은 바트는염료의『인딴스렌』종류입니다. 견뢰색은 빨아도 빠지지안코 해볏체 바래지도 안는까닭에 이런염색을한옷감은 보통색보다한마에 오전내지십전가량빗쌉니다. 보통색은 직접염료(直接染料)나 『나프토ー르』등여러종류가잇습니다.

×

날염(捺染) 일본말로는 날센이라고합니다. 조회에인쇄(印刷)를하듯이 필육에 문의를박는것이니 밧이라는문의를 구리루ー라에 색여가지고 긔계에걸고서 긔계를돌리는대로루ー라에 물감이무더돌며 필육이루ー라를거처 나오는대로 문의가박혀지는데 삼색이면루ー라가 셋이요 오색이면루ー라가 다섯을 한긔계에걸고 차례로『루ー라』마다 감아넘어오게되엿습니다. (『루ー라』는 원발음(元發音)이『으로ー르러』인데 흔루께가러 둥글게된것을 가르치는말입니다)

폐가약한듯

問 금년이십륙세되는 녀자인데 작년이월부터 소화불량으로 고통합니다 구미가업고 식후한시쯤되면 머리가아프고 열이오르며 명치가아프고 배에무엇이 굴를거리며 방긔가납니다 정신이업고 공상이심하며 기분도조치못하고 차차눈도 흐려집니다 무슨원인일까요 폐에관계는업것습니까 폐에대한보제는 어떤약이 명약이며 음식물은 어떤것이조흐며 위에적당한약을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一苦痛女)

答 폐병시초로써위장증세로시작될때도잇는고로 진찰치안코서 확실한대답을 하기어렵습니다 폐에대한 명약은업습니다 그러나 보통강장제로 네오톤、뻐로토ー제、하리바유、몰트엑쓰등이조흔것갓습니다 음식물로는 어떠한것이던지소화되기쉬웁고 흡수잘될음식을 선택하시고 자극성은 해롭습니다 복약은하면진찰을밧고 하게하시요 (醫專病院長 朴秉來)

잇몸에서피가나

問 저는 금년십팔세된 미혼녀자입니다 정신에는 아모런병도업고 비교적 건강한편입니다 도한치아도 대단히조와서아모런 구든음식이라도 잘깨무러먹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먹을때 흔은 이를 닥글때 니몸에서 피가납니다 그외에 이상하게도 월경시에는 닛몸이 붓는듯하고 피가 자조납니다 엇지하야 그럿가요 무삼약으로 치료하면조흘니까 자세히하교하야주십시요 (市內某女高生)

答 당신의병은과히 심하지안흔치조농루(齒槽膿漏)인듯하오 대개 치석이나 흔은 자극성잇는 음식물로인하야 발병되는것이니만치될수잇는대로 치석을깨끗이 업센다음 자극이심하지안흔 치마약으로닥그시요 월경시에는 잇몸주위에 점막이부어서 충혈되기쉬운것이니 커짐으로부터오는요 약으로난 二、〇%에 『머큐로크롬』액을 하로에 四五회잇몸에발러보시요 세부란스病院齒科 金某

번민끄테생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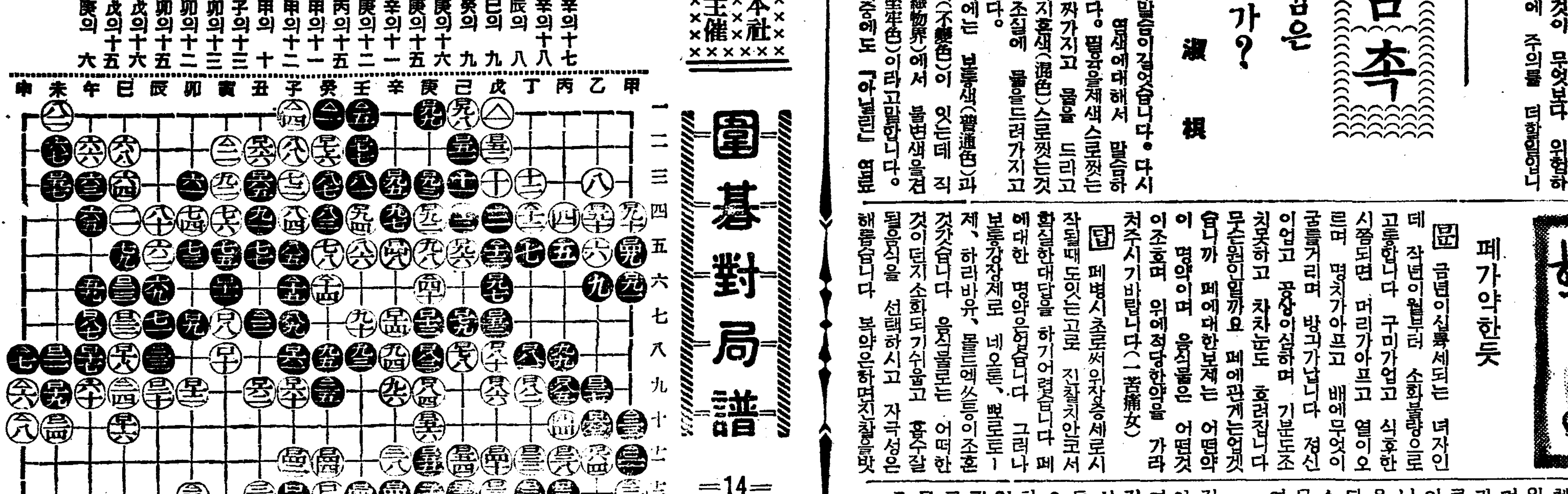
問 이년전에 결혼한이십일세의 녀성입니다 결혼전에는 신체가 건강하엿는데 결혼후 약일년동안 번민과공상으로인하여 머리가아프며 현기가나고 소화가불량하며 수면이곤난하고 항상 큰일을저즈른것가티 화가나며 눈이아즈랑이끼인것가티 흐릿터분합니다 작년가을에는 편도선수술을하얏스며 한약도만히먹엇습니다 지금은항상마음을도화평하야 것스나 그전증세는 낫지안하오니 무삼병일까요 무삼약을 복용하여야조흘까요 (龍岡一女性)

答 번민과공상으로생긴여러가지끄테 화평하게되얏서도 낫지안하다고요 확실히당신말과가티 여러가지 번민과공상이업서젓는지? 단순히 그것이원인이되여서 생긴증세라면 원인이업서지는 동시에 나흘가트나 낫지안흔점으로보면아즉 원인이업서지지안하얏슬것갓습니다 만일 다른원인으로생긴증세라면 그원인도여러가지가잇스니단순하게 지상으로말슴키 어렵습니다 한번 전문의사에게진찰을 바더보는것이 조흘것갓습니다 (聖母病院長 朴某)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4=

白 丁奎春
黑先 權秉郁

●二二一 辛의十七
○二二二 辛의十八
●二二三 辰의八
○二二四 巳의九
●二二五 癸의九
○二二六 庚의十六
●二二七 庚의十五
○二二八 辛의十一
●二二九 庚의十二
○二三〇 丙의十五
●二三一 甲의十一
○二三二 甲의十二
●二三三 甲의十
○二三四 子의十三
●二三五 卯의十三
○二三六 卯의十二
●二三七 卯의十五
○二三八 戌의十六
●二三九 戌의十五
○二四〇 庚의六



棊極文氏評曰 黑耳角邊幅과 白耳角邊幅이 略相似排列되고 指揮周旋과 圍繞經營이 伯仲으로 看做되니 勝敗原由에 敵手棋를 相逢하엿다 及其計戶에 白이 二目不及은 惜敗라하노라

互先 白 丁奎春 白五十二戶
黑 權秉郁 黑五十四戶 黑二目勝

七月廿四日晝間부터 三大名篇特別封切公開 每日晝夜二回 正午十二時부터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獨逸 巨匠 프리스랑그監督 大傑作 怪人마부세博士 오토·벨니크氏 루돌프클라이로게氏 꾸스테푸 데이루스氏 共演
稀代 發狂한天才마부세博士는 十年間研究하고잇는 ... 第二마부세博士가되여 伯林은 또다시驚異 ... 보내는우리들의期待
松竹蒲田特作品 佐佐木一郎氏監督 音樂映畵 躍進東京 港まつり 藤井貢氏、若水絹子孃、飯田蝶子孃、久原良子孃、小林十九二氏共同主演
黃金町五丁目 電光一六一番 第一劇場

廿二日ヨリ五日間 晝夜二回入替ナシ
▲ロジタ パ社 グラデイス·スオザウトウ主演
▲エノケンの千萬長者 P·C·L 榎本健一主演
▲接吻とお化粧 パ社 ケーリー·グラント主演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P·C·L映畵と高級洋畵
若草映画劇場 電本三五四一番

薔薇はなぜ紅い 主演
西部의爛風
蓄花紅蓮傳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瀑布를 차저서 (其四) 建差山中에 잇는 元曉瀑

『막심・꼬리키ㅣ』의 藝術에 對하야 (2)

韓 雪 野

그는 치프리스의鐵道工場에서 勞働하고잇슬때에 處女作『마칼・추드라』를 써서 그翌年 即二十四歲(一八九二年)에 地方新聞『카프카스』에 發表하고、故鄕 니쥐니・노브고로드에 돌아가 그곳을 가新報』에 短篇을 發表하는一方『에메리얀・피라이』라는 小說을 써서 首都의大新聞『루스카야・베도모스치』에 發表하야 一躍 名聲을 울리게 되엇는데 그 作에서企圖한 착취에對한 憎惡와 侮蔑을 그主人公의입을빌어 이러케말하엿다——

『우리들은 우리들의뼈를 할는 나의리에게가서 될수잇는대로접잔흔말로 나리여、존경할만한흡혈귀어른이여、우리들은 당신에게 이산물을 진상하려왓습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이것을 一부려먹을수잇겟습니까。하고 말하지안흐면 안되겟다。』

꼬리키ㅣ의同情은 勿論『食人鬼』에게잇섯든것이 아니라『피라이』에게—— 피라이와 불리는 망에 잇섯든것이다。

그럼니만치 그는 전쟁이에게 對한 마음도컷다。그리하야 어떤 進步的인運動에 겁을집어먹는『文明한俗物』에對한 嘲笑로 거짓말한『靑鳥』와、『現實을 사랑하는 啄木鳥에對하야』라는

小說을쓰고、이어自由奔放한 波濤을 그린『아루히프說』노래한詩『소다음『大膽한無賴漢들의 노래』와『독수리의노래』(一八九四年)를 썻다——

『우리들은 勇者의無智를 부르고 노래한다! 勇者의無智——그것은 生活의智慧다! 오、勇敢한독소리여! 너는적과의싸움에、피를흘렷다……그러나 인제때가오면——너의피스방울은 불꼿가리라울리서 生活의어둠을비칠것이다。그리하야、만흔心臟은、자유와光明의 狂熱한渴望에、타오를것이다! 너는죽어도조타!……그러나 勇敢한 精神이強을가진노래스속에서 너는 언제든지 자유와 光明의 生生한 참다운 자랑스러운자태를 뵈일것이다! 우리들은 勇敢의 無智를 부르고 노래한다!』

그다음 그는 知友요 作家인 코로렌코의勸告——『自己에게 對하야 더욱 忠實하라』라는말과 雜誌에發表할 大作을 쓰라는注意를밧고

最初의大作『첼카쉬』를『露西亞의富』雜誌에서 發表하엿다。이것은 동가의勞働을 取材한것으로 金錢이며 조고만幸福보다 떠노픈곳에 自己의自由로운生活形式을찻는 豪放果敢한浮浪人 첼카쉬、自己自身에 對한 打算에 파무처서 豪放한 첼카쉬를 理解하지못하는 農夫 카우리라와를 對照的으로 그린것이다。

꼬리키ㅣ의 有名한比喩를 빌어말하면 『어떠한집오리(農夫)의 맘에도 일즉 들오리(첼카쉬)엿슬時代의 殘像이 숨기여잇서서 들오리가 空中노피 나는것을 볼때에 집오리는 興奮하야 떠들어대는것이다』 집오리인農夫는 들오리의자유를 아는날이잇슬것이다 그것을 아는날에는?……꼬리키ㅣ의로맨티시즘은 實로이比喩와가티 流露하가운데 붓치가튼 未來에의 灼熱이잇고 大海가튼 雄博함이잇다

이와가튼 로맨틱한 形式으로 生活의奴隸的條件에 對한 불과가튼 항의를表現한 浮浪人의 形象을 가르처 當時 니ㅣ체主義者라고 稱한사람이잇스나 그것은 正鵠을잃은 解釋이다 쁘르조와的니ㅣ체的個人主義에 對한 論駁은 꼬리키ㅣ의

作品에서 發見하기어렵지 안타 남의 幸福을 爲하야 自己의 胸中에서 스스로 心臟을 뽑아내여 群衆의머리에 언고 自己를犧牲한 英雄단고에 對한 傳說을 內容으로하는 그 다음作品『이절기르老婆』中에 나오는 人間(女子)과 수리개의엽 마우자ㅣ라라(단고와對照되는)는 말하자면 니ㅣ체의超人과 가튼 生活을하는存在인데 꼬리키ㅣ는 그作品中에서 다음과가티 말하고잇다——

『새우가티 自由로운그(라라아)는人間이잇는데로와서 家畜이며 處女며——무엇이든지 빼서갓다。사람들은 그를 활로 쏘앗다。그러나 화살이 그의몸을 찌를수업섯다…… 그는 饑餓하고 貪慾스럽고 힘세고 殘酷하야 決코 사람들과 얼골을 맛대인일이업다。그러나 라라아는 自己가孤獨한것을 슬퍼하엿다。다른사람과 接近하는데서생기는 따스함이업는 그의傲慢한 오직한사람만의自由』가 그에게는 무거운집이되엿다。그는 죽으랴고하엿다。그러나 죽을수업다——罰의가혹은 그自身中에잇섯다。그는

不死의人間이엇다。그에게서는 生活이 업서젓다 죽엄도 그에게 속삭이지안켓다 그리하야 사람들에게는 그가잇슬 곳을가엇섯다……이리하야이 人間은 傲慢한데으로 破滅한것이다」

얼마나 놀라운想像力으로 超人의 破滅을 그리엇는가? 그러나 그보다도 그는 超人의破滅의反面에서 群衆의 幸福을爲하야 心臟을 뽑아낸 英雄단고를 對照的으로 살리려한것이엇다。即 人類全體의 事業때문에 即 存在를 無視當하고 혹되히 苦難中에 빠저잇는 사람들때문에 自己를 히생하는 거룩하고大膽한勇氣를 表現한것이다 密林과가튼 어둠에서 悲慘한날을보내는 대중을 볼때에『대체 어떠케하면 조흘가?』하고 생각한 英雄단고는 自己의心臟을 뽑아 거기對答 한것이다。 꼬리키ㅣ의 灼熱하는로맨티시즘은 여긔서 絕頂에이르럿다

꼬리키ㅣ의 리알리즘時代가시작되엇다。이것은 決코 根據업시 온것이거나 남의追從에서온것은 아니다。現實에對한 眼界가 자꾸 널버지고 그觀察이 행결 기퍼지는데서 必然的으로온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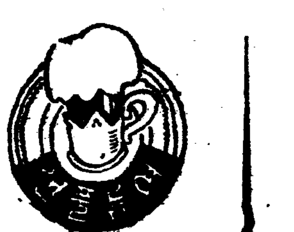
이리하야 그의藝術은 浮浪人만이 活動하는 맨밋 階段에서 한階段올라섯다。그는 여기서 浮浪人과 貪慾한 商人과

資本에 忠實한 小市民과 無氣力한 自由主義的인테리겐챠를 보앗다。흘라는 生活改造의 意欲미테서 無意識한 解消와 辛辣한 攻擊이 開始되엇다。『코노와롤호』『오르롭夫妻』『過去의사람들』『亂暴한사람』『와레니카・오레소와』『惡魔에對하야』『다시惡魔에對하야』는 이時代의 産物이다。

그는 이어『카잔』에서의 땅집 職工生活 一日五留 十四時間乃至十八時間의 勞働 그러나 進步的인 青年『프레도넨코』며『데레곤호』等과 發禁者 禁書等을 交換하든 팡진生活——스만도린의 表現에따르면『相互扶助의地下的金庫이며 또는地下者圖書館이며 郵便局인』 팡진生活을 그린『二十六人과 一人』『獸』을 發表하엿다。

在家讀書

朴 鍾 鳴



아직妻는 回復되엇습니다 그래로 집에서지내게되겟지오 平素에 보려든冊이나 두서너卷읽을가합니다 나自身으로 어린방法을가지지못한 로 맡아서 하루에다른이에게 하앗스니 생각는바에 저는다만 생각할줄 고칠다할것은 더욱 엇습니다 이나 年齡等에따라 自然달려야할것이라고나할가요 그리고 一般으로 家庭이 容許되는대로 不規則한生活을避하야 마음을 가다듬어 떠다는 觀察에서 사로잡하지안는것이 조치나안할가 생각합니다

李朝陶磁器小考

그由來、品質、出土等에關하야 ❶

朴 秉 來

李朝陶磁器는 高麗陶磁器에比較하면 그手法技巧가 全然다르다 李朝陶磁器中 三島系統 即 高麗陶磁器時代로부터 李朝時代의 變遷에이르는 中間陶磁器를 除外하면 出土品이업고 全部라도過言이안일만치 代代孫孫으로 傳하야온 傳世品이 그太半이다 그럼으로 李朝陶磁器는 破損한것이만흐며 또는 그數도 적다 李朝陶磁器가 一般的으로珍重히 生覺되게된것도 過去十年內外에 지나지안한다 그럼으로 그藝術的價値도 現今에는 充分히 紹介되지못하얏슬것이며 이뒤에도 그數가 적으니만큼 一般的으로高麗陶磁器와가티(多量的出土品)愛翫的對象物이 적게될것이다 一面으로 그數가적으니만큼 高麗磁器에對하야 稀貴난 다름지언정珍重히 取扱될 陶器인줄로確信한다 그럼으로李朝時代에 陶磁器의徑路는 如何히되엿나를말한다면 成規의慵齋叢話에 世宗朝御器專用白磁。至世祖朝雜用彩磁。라하는文句가잇다 이것으로보면 李朝 第四代 世宗大王時에 宮中用器는 專혀 白磁를 使用하얏고 第七代世祖大王時 부터는 彩磁를 使用하엿다 한다 彩磁라하는것은或은染付로서 各種陶器等을 그린것이다 成規로말하면 世宗二十一年에 生하야 世祖四年에 進士하고 燕山君十年 即六十六歲에卒한 學者이故로 이記事는 信憑할수잇는줄로 생각된다 그러면白磁의 始作된것은 그文句로생각하드래도 그以前에되것이겟스나 彩磁는 白磁以後에 始作하얏슬것도 自然히 알게될것이다 勿論 此時代에는 宮中에서만 白磁及 彩磁를 專用하얏다하니 一般家庭에서는 使用치 안하얏슬것인가? 勿論使用되엿슬것이나 大槪는 三島系統器皿인줄로 생각된다

李朝時代의 陶磁器는 어듸서 製造하얏나하면 廣州(京畿道)製品이 第一精巧하고 高靈(慶尙道)이 다음일것이다 李朝實錄中 世宗實錄에 附載된 地理誌를보면 磁器所、陶器所의 位置及그製品의品等까지 註記하얏스니 磁器所는 八道를 通하야百三十六個所 그中慶尙道三十五個處가最多하며 全羅道、忠淸道가그다음간다 以上六道만 八十九個處의 多數를 占有하고잇다 다시그品等으로보면 全國中上品의 磁器産出하는 곳이 겨우四個處이니 即廣州에 一處 高靈에一處 尙州에二處이라하얏다 그러나 그中에도 廣州及高靈의製品이 上品이될것이다 그것은 成規가 上品이란 條에廣州及高靈만 列擧하얏고 尙州는列擧치안한것으로 또는 世宗時로보터 四十年後에된 東國輿地勝覽에보면 廣州土産磁器下에는 司饔院燔造御器하고 高靈土産에는 磁器上品이라하얏스나 尙州에는 列擧치안한것으로보아도 尙州品은 上品이못됨을 생각케된다 其外何處陶器所는 모다가 中品以下의것이다 近年에 흔히開城附近에서 發掘되는 一般珍品으로 生覺하는것이잇스나 世宗實錄 地理誌에 開城府의條에 磁器所란 말이업는고로 當時開城府에는 磁器製造치안한것으로 推測된다『그러면 所謂開城發掘品이라는것은 무엇일까 이것은廣州所産 일것이다廣州製品이 當時開城府人士가 至今까지 가저오든것이 近近開城에서 만히 나오게 된으로그리誤傳되엿것이라고 한다 平安道에는 磁器所이업섯스나 中國使臣來往時에 燔造鉢이 不潔하다는 理由로 世宗大王六年에忠淸道磁器匠二名을 擇擢派遣하얏다고 世宗實錄에記載되어엿다 以上과가티 李朝陶器所에 註目되는것은 同所에 揭載한 磁器所가 高麗時代窯址와 全然關係가 업는것이다 即當時高麗磁器로 有名하얏는 全南康津 또는當時首都이든 開城에도 一處의 磁器所가업다 또康津의 다음에가든全北扶安郡에는 겨우磁器所一在縣南甘佛里。品中』이라하얏슬때름이다 또昭和元年에 이르러有名하게된 鷄龍山燒(三島系統)窯址即 忠南公州郡反浦面鶴峰里鷄龍山麓의窯址는 同地東鶴寺에 가차우며 實錄 地理誌 公州牧條에『磁器所二。一在州東東鶴洞。品中』이라하얏스니 高麗窯址와 李朝陶磁所와 連絡이업슴은 한異彩로 생각할것이나 그러나 이點은 異常라고 생각할수업고 當事라하겟다 그것은 高麗磁器製造로 어떤窯址近隣에 燃料가欠乏되것이 一大原因이라고생각된다

留學生通信

隨筆(一) 理想을사로잡는者

世專 金 汝 鶴

말에 湖馬는 南風에 울지를 고 胡馬는 北風이 불때마다 北쪽나라가 그리워운다고한다。다시말하면 새나즘생가튼것도恒常 自己性能에 알맞는 故鄕의 自然ㅣ곳 生活的인 理想을 좃고잇다는것이다。하물며 사람에잇서서랴。

『人生은 決局 到達할수업는 理想을좃는 한프로세쓰 그自體다』고한杜翁의말이 果然 올치안흔가。

人間은 人間으로서의理想을가젓기때문에 그것을實現하는路程을 짓고 노래를부르는것인가한다。理想! 理想은 人間生活의活動指針이다。모름지이 사람의갈빼를가르치는羅針盤이다。人間은 그로因해울직이고 歷史는 이로因해꾸며진다。分明히 世界史는 그瞬間 理想으로서의 實際 事實 할수잇다。

이世上 눈물과 피와 우슴이 오죽 理想으로말미암은 人間彩色이엇다。하로의삶을지랭하려는 努力이나 美를 차조려는衝動이나 美의調和를찻고드려가는 藝術의 무지게나가、모다 理想이아닌것은업다 人과善과사랑을가르치 敎育하려는學者들의 먼곳을 하고 가까히 갈잇고 뜻잇는 만흔머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죽고 抵抗하며 싸워가며 地上樂園의 드노픈理想을 꿈꾸엇는가。

나는 그時代의 性格을規定지고 人間의그人格을 決定짓는것은 理想가인가한다。

한사람이잇서 理想을 조출때 能히 到達할수잇는反面 到達하는 그瞬間 理想으로서의 實際는

허버리는 말하자면 現實的이면서도 刹那的인 그런한 理想만을 조출때 그는 적은사람이되고 衆人들과 數多와가티 永劫의 世界에서 人間久遠의 行路를 밝히고잇는 일은바 理想的인 理想을 좃출때 그는큰사람이되고、그두理想을 巧妙히 時代와 調和하야 좃칠때 그는 世紀의 成功者가되는것이 아닐가。이와가튼것은 時代와의 關係에도 마찬가지가아닐가。

自古로 歷史가잇섯스매 無數한人間이 사라왓고、그들이 營爲한 生活이 許多하엿슬지면 그時代 그生活의模的이 되엿든理想이또한許多하엿슬것이다。

나는 이크고적은 各種各色의 뭇理想을 觀斷하야 크게두가지 種類으로 그것을 分類할수잇슬 상싶다。即 徹頭徹尾 自己個人의利益에서 出發한 利己的인理想이 그하나이요 世界人類의 幸福과 平和를비는點에서 共通되는博愛的인 理想이 그다른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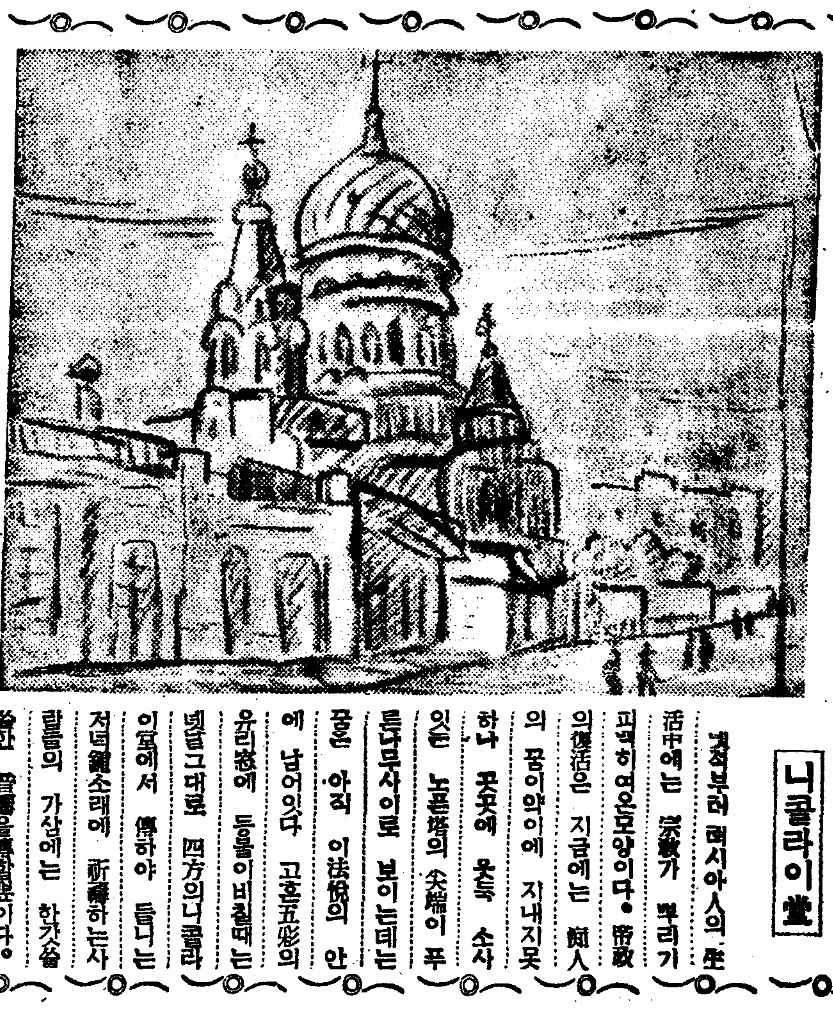
우리는 나폴레옹의 빗나는事業에한참驚嘆을 보앗고 猶太人의 피흘은 十字架우에 도한참感激을 보지안핫나。맘과피! 이는곳矛盾이요 反對이요 相剋이다。

善과惡의 分岐點을 這間에엇볼수는 업는가。自我를 主張하야 남의 犧牲을 돌보지안흘때 카이젤의悲劇이생겻고 남을爲하야 自我의 犧牲을 돌보지 안흘때 크리스트의 善이 나타나지 안핫든가。

確實히 利己는 惡가되기쉬웟고 博愛는功이되기쉬웟다。그러나 사람이제마다 利己를 바리지못하고 博愛울어려워하든 무슨까닭일가。

異國情趣 (六)

於哈爾濱 宋 致 勳



니콜라이堂

녯적부터 러시아人의 生活中에는 宗敎가 뿌리기피박혀잇는모양이다。帝政의復活은 지금에는 一個人의 꿈이얏이에 지내지못하나 곳곳에 옷독 소사잇는 노르땅의 尖端이 푸른하늘사이로 보이는데는 꿈은 아직 이法悅의 안에 남어잇다 고흔五彩의 유리窓에 등불이비칠때는 넷날그대로 四方의니콜라이堂에서 傳하야 들니는 저녁鐘소래에 祈禱하는사람들의 가삼에는 한가슴 슬한 音響을傳하는것이다。

新刊紹介

▲長詩 氣象圖 金起林著 (內容)世界의아츰、市民行列、颱風의起寢時間、자최、病든風景、올빼미의呪文、쇠바퀴의노래、等其他 定價五十錢 發賣所 京城府寬勳町一二三 東光堂書店 振替京城一六一二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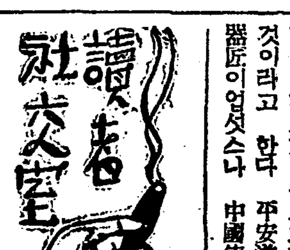
▲桂友 第十六號 發行所 京城府桂洞町一 中央高等普通學校 同窓會 (非賣品)

▲復活運動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五丁目 復活社 振替京城一一八七〇番 定價五錢

▲朝鮮敎育時報 第十一號 發行所 京城府新設町一三二 朝鮮敎育時報社 定價一部五錢

▲詩集 말하는沈默 張在昱著 (內容) 여름의情景、흘개고리、海邊의夕暎、旅愁、流離客、第十三景 (全十二篇) 外數篇、定價八十錢 販賣所 東京市淀橋戶塚町一ノ三六七 三文社出版部

讀者社交室



▲本人은現在市內某商業學校에在學中이온대 經驗을엇기위하야 市內西大門近處로 現在商業學校 一學年在學生을 無報酬로每日一二時間식가르켜주고저하오니 願하시는분이거든讀者社交室로通하야 住所를 通知하시옵을바라옵(但學生은男女不拘합니다) 舘洞町五七ノ六 原名 崔永斗 HYD生

▲早稻田大學第一高等學院과同第二高等學院과의 相違한點과右兩學院의入學試驗科目을알려주십시요 (至急生)

▲基亭君 只今어듸서무엇을하는가? 京城君의通知를바든後엔

▲慶州愛讀者諸兄들에게 未安한付託을 하랴고합니다 다름아니오라 小生은 歷史遺物古蹟을 사랑하고 그集에 趣味잇나니 諸兄이여 慶州古蹟遺物의寫眞繪葉書其他古蹟에關한 그름이有하시거든 奔忙하신中이라도 알려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府內 GYK

▲社交室을 通하야 뭇습니다 樂園町에잇는 吳玉姬라고黃海道載寧邑에原籍을둔 妓生이시는분이게시면社交室을通하야 住所를알려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親切하신先生 下記질문하야주시면 千萬生光이겟습니다 西曆一九〇一年 (陰曆十一月十一日)은 陽曆으로 何月何日이며 何曜日인지요、下敎하야주시옵소서 (牛生)

아모消息이업스니 퍽궁금하네 速히社交室로나 直接으로나 또대로通知하기바라네 華山의一友 春暉

▲敬愛하는兄 玉明淳氏本欄을빌어서 現住所와、消息을알고저합니다 數年前에 上海게신 玉觀彬氏遭難當時上海로가시엿는지 그러치안흐면 只今까지 客地에서 鑛業에 熱中하시는지 住所를 不知하와消息을 듯지못하오니 마음傷합이다 今日 本欄을通하야 널리告하오니 四海諸位는 或是玉明淳氏의 住所나 消息을 드르시면 本欄을 通하야 下敎하야주심을 伏望하오며 더욱이 玉兄께서 이社交欄을 보신다면 萬幸일가합니다 京城府蓮池町一三一 曹喜淳 左記場所로 下敎하여주옵시면 謝禮를表하겟습니다

▲新義州崔仁學兄께 나亦十七歲의少年 文學의 길에 부듸치고저 만부득을 떠나는 一小片舟。滄洋의 怒濤를 바다에그리며 機會를기다릴때 마츰 (本社交室을 通하여) 兄을만나니 親밀이나맛난듯한感이 생깁니다 그러니以後에만흔사랑을! 鏡城高普 李昌俊

▲五月十八日夕刊 市內某專門生L氏출몸옵고 仔細한말씀엿슬겟습니다 未安하오나 住所를左記住所로좀알려주시면 곳가서뵈옵겟습니다 京城府鳳翼町一五〇 李元鎬

▲韓外叔! 本人의 外叔夫奉文氏는約二十年前에 全南靈光郡郡西面南阜里에서 間島開山屯이라는地方으로 移居하섯다는데大正十三年가을에 父親(曹文三)氏께옵서一次相逢하시고오신後로는消息이頓絕하여 杳杳한음信이외다 이讀者社交室을通하야널리뭇사오니 外叔主께서는勿論이지만 누구시든지 夫奉文氏의行方住所 現在立場을 아시는분은

▲松花氏에게 五月二十七日! 奉天驛頭에서 惜別의握手를주고밧든 그瞬間 그다지도 아를다운그눈에 어리엿든 그눈물은 아츰햇볏에 슬어지고마는 풀입헤 이슬이엿든가요?

가든瞬間에 맷치엿든 나의눈물은 지금도 오히려 哀傷에저즌 이마음人속을 기피기피파고숨여드는대……그대는 너무지독하더이다 헤여진지 어느듯벌서月餘! 그동안 數十枚에갓가운片紙를 바다보앗건만 그대의일홉석자뿐이나마 쓰인 빈봉투조차한장업스니

六月마즈막날 一松

其時節을 追憶하며 江原道伊川松亭里에서 蒼太生

▲高等文官試驗을 早稻田大學專門部만마치고칠우는것과 同高等學院을거치여 大學本科를마치고보는것과 經濟方面 時日 費用等을 綜合的으로觀察할째 어느곳을取擇하는것이實明할가요 (自然人)

▲洪白石先生께答합니다 大正十四年陰四月二十日은陽曆五月十二日이외다 義順室主人

▲發明界朴壽得君 筆者도科學에多大한趣味를가지고잇스며 君과가튼靑年과 자조맛나고십소이다 君의發明品이 數種잇다하니拜見이如何? 無線에對한 書籍이잇스면 他書籍과 交換을 希望합君에成功을祝賀 仁川 金東木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九月二十日—至三十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入選作中에서左記二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各좌記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褒賞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 【本社長賞】 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選賞에兼하야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 (四君子를包含함)

西洋畫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十二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十三日至九月十五日(但前記支局을通하야搬入할時는九月十日至九月十四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本社 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にきびとり美顏水

얼골에기름끼도는분、얼골거문분에第一等의水白粉!

△特別化粧力

이水白粉의獨特하고優秀한美容成分과微妙한살빗의作用으로、낫빗이하지못한분과낫에기름도는분에、속살부터美麗하고산뜻한化粧美를나타내게됨으로大評判!

여드름부스럼에第一良藥!

여드름・부스럼・에第一等가는良藥입니다、여러가지藥과方法에失敗하신분들은 이藥의效力만은반드시確信을드리실것입니다。

버륵빈대等의毒虫으로가려울時

버륵・모기빈대・진드기等의毒虫에물려가려울때에이藥을조곰부치면不愉快하든病症과가려운症은이친드시解消됨으로重寶한것입니다。

美容藥으로써!

入浴後와洗面後에使用하면爽快하고、여드름・부스럼을豫防止하야살바탕으로부터 美麗하게합니다!

肌色美顏水

布囊記 (七三)

連載野談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복을짓는그칼 (十七)

훙등왕자가 자긔가슴에 담담중이 생긴것이 올오지 공주의사랑에빠저 대무신왕도 이저버리고 조국도 이저버리고 마음에 깁히 깁히 노리든 그북과 라팔도 이저버리게 되것으로 맘미암아 생긴것을 확실히 깨닷엇다.

그리하야 곳 주먹을 힘잇게 쥐고 잘은 공주를 내려다 보면서

『내가 큰뜻을 품고 이나라지경을 들어섯거늘 이제 나는 그큰뜻을 다이저버렷뇨 그까닭은 저공주。몸이 게집에게 빠지면 죽엄이 온다는 옛말이 분명 헛말이 아닌것。그래 이몸이 게집에게 빠저서 죽고 말어?。』

하며 공주를 한 요놈과가티생각하고 주먹으로 힘잇게 그자는 공주를 후려 갈겨주고 십헛다。

그러나 이런생각은 즉시 한걔긔요 공주에게 대하야 큰 죄악으로써 생각하얏다。

『아니야、아니야、공주가 무슨 죄가잇나。죄가잇다면 그죄는 내게잇지。내가 이죄를 면하려면 아주 독한 맘음으로 먼저 공주의 사랑을 이저버리고 그대신으로 그북과 라팔에 대한 생각을 굿세게하여야지。』

하며 공주에게 빠진 자긔몸을 먼저꾸짓고 다음에 공주의 어엽분 자태를 이저버리려하엿다。

그러나 그것이 용이하게 이저지를 아니하는것은 물론이오 그중에서도 특히 어느날밤에 공주로 더부러 정답하든것이 더욱 잇처지지아니하엿다。

『내가 공주를 향하야 남의안해가 되여서 가장을 섬기는 도리중 제일 큰것이 무에냐고 물엇지。그랫더니 공주가 대답하기를 세가지라고。무엇무엇 세가지냐하얏드니。하나는 마음으로 섬기는것、하나는 손(手)으로 섬기는것、또하나는 리치로 섬기는것이라공。그뜻이 무엇이냐 물엇드니。마음으로 섬긴다는것은 아모조록 가장의 뜻을 잘바뎌어서 그마음을 편하고 질겁게하는것。손으로써 섬긴다는것은 의복과 음식을 아모조록 몸에 맛고 입에 맛게하는것。그리고 그리치로 섬긴다는것은 옳게고 말을 아니하얏지。그래서 나는 그것을 절착하면서 징짓 그뜻을 물엇지。그러나 공주는아미를 숙이고 봇그런 태도로써 대답을 피어코 아니하얏지。마저 그리치로 섬긴다는것은 절조잇는 유양의 도를 말한것。』

하며 훙등왕자는 공주가 그세가지를 들어 말한것은 과연 이질주가 업섯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그세가지를 들어말하는것은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밝은 녀자가아니고서는 능치못할것이니 진실로 공주는 자태만 아름다운 녀자가 아니오 녀자의 천생도리와 직책을 또한 잘깨달은 어질고도 밝은 녀자로생각한 까닭이엇다。

그리하야 훙등왕자는 공주의 생각을 마음속으로 부러 빼내려하나 그럴사록 공주의 아름다운 자태와 듯침한 실리며 정숙한 행검이 고롭、고롭 더욱 생각이되엿다。

『아아。나는공주로 하야금 죽지아니하면 맘정은 맷지고말사람。』

하며 훙등왕자는 도한 공주의 생각을 빼버리지못하고 그대로 공주의 그세가지 큰 도리로써 극진히 섬기는데 빠젓다。

그러다가 훙등왕자는 문득 자긔의몸이 중흥를 불고하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것을 생각하얏다。

『아아。한게집에게 빠저서 이내 일생의 일백가지 행실중에 옷뜸이되는 충흥를 이저?。아니 그것을 멀하면 삼천가지죄중에도 제일 큰죄가되는 그불충、불흥의죄! 그것을 내몸으로 지어?。』

하며 훙등왕자는 우아래니를으서지게 악물며 지필을 내어노코 필경은 공주의 사랑을 떼는 글월을 쓰게되엿다。

붓을 잡은 그손은 발발 떨

海外映畫消息

◇躍進하는 蘇聯映畫◇

▼에프론(潛水遠征局)의 活動과그生活과를 그린두개의 映畫가서로 前後해서公開되엿다。하나는『베르고스키노』(白露西亞國映)의藝術音響『航路(푸ー리·카라브리아)』北方의荒海에서 氷山과 暴風雨로더부러 싸우면서 潛水夫들이 沈沒船揚上에 從事하는 英雄的行動을 만흔挿話로 그린 作品이다 안해에게背反當한 潛水母艦의艦長、泥醉가되엿서도우스면서 死地로나어가는 一等潛水夫 乘船의沈沒에서 潛水母艦으로 救助받은것은 女新聞記者 船長의안해를 도척한副長과 船長의關係 그리고氷海中의 暴風雨속에서의 潛水作業을 頂點으로하고『쥬ー모어』의點綴로서 極度의緊張을 緩和하면서 船長과 女記者와의 新生活의 初步에서 潛水隊의 勝利의行進을 表象하기까지의 이야기이다、그러나事件이넘우만하서 도리혀中心의一線이희미해진 不備의作品이다。脚色은『엘·소코로프·미키도프』監督『유리ー·라리ー린』『農奴의쫓』撮影主任『카리싸루이』、作曲은『이·두나에프스키』(『明朗한사람들』) 美術은『에스·마데리』出演者는 功勞俳優『게·코브로프』同『이완·추ー웨로프』同로자·수웨드로와『擬』가리나·크라프칭코』嬢『엔·프로조로프스키』等이다。

다른하나는『레닌필림』의藝術音響『沈沒船의財寶』(『쏘크로ー뷔시차·포기ー프쉐오·카라브리아』)黑海에 沈沒된 古船의 金庫에서나온 金貨하나를 에워싸고 一聯의 探偵趣味를 너흔 作品이나 別로 자미로운데는업다 다만력드력이 아닌 實際의 海底撮影에 成功하엿다는것이 이映畫의 가장 取할 點이다。그리고 潛水夫의 일의 實際를 比較的 잘分析해서 보혀준 點에 敎化的意義가잇스나根本주레ー마』의 强調에는全然失敗하엿다 脚色은『베·라파로프』監督은『베·브라욷』撮影은『베리니킨』主演은功勞俳優『엔·바다로프』『에프게니아·프리야로와』『아·게ー든만』『떼·시리프링』等이다。

▼『모스크바』의映畫觀客에 對한 調査報告가發表되엿다 現在映畫劇場은그數四七、座席二七、八五〇 劇場과同樣으로有料興行을繼續하는俱樂部(大工場官廳等에附屬되여잇는)八、七座席四五四、卽上映館合計一三四、二座席六九、四〇四이다。그래서 所謂『積極的觀客』은 各上映館에 對해서 一九、〇〇〇人이다、最近의 一年間에 이四七劇場에來觀한客二三、九四六、三〇〇人 俱樂部에는二、二六一、七〇〇人이다 그래서 全部가 約二千六百二十萬八千人이니 이것을 平均하면 十六歲에서 五十六歲까지의『모스크바』人이 各各一年間에 一〇·三回의 映畫를 보러가는심이된다。

▼『키노포ー로이잣다ー르』(映畫、寫眞書出版局)는『차베르映畫藝術作시리ー즈』의 第一篇으로서 『차퍼ー에프』를 發行하야大衆의 成績을보엿는데 第二篇은『베·위시니에프스키』原作脚色의 치가監督의『우리들은크론스탓트』에로부터』라는것으로決定하얏다。映畫場面의 寫眞과撮影、스냅等을넣은한口繪가드러잇는데 近日發賣한다고한다、『모스크바』一九三六年度 大作으로서 三月二十日『모스크바』封切、四月부터 五月에걸처서 巴里 紐育을中心으로 世界映畫界 本年度 最高作品으로서의大評判의映畫이다。

▼『베르고스키노』(白露西亞國映)長篇藝術音畫『火焰中의드니에프르』의 撮影이開始되엿다革命前期白露西亞의 夜勞働者의 同盟罷工運動을 그려서그것이 露西亞人과 猶太人과의 國際的團結에까지 發展해가는 過程을그린作品이다 脚色『바라시코』及『코베쓰』監督『체·사빈스키』撮影『데·시퓨레이트』美術『엘·메ー돌』音樂『뷔·재로빈스키』及『위ー로편』等인데 本年의 革命記念 映畫의 豫定이다

父母의愛情도 金錢으로解決

바소로뮤의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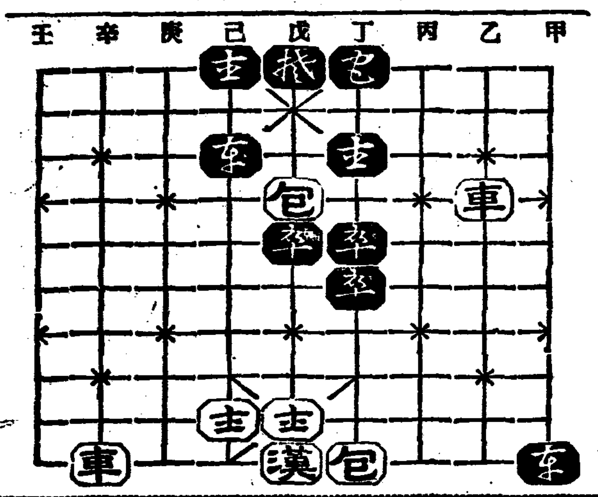
【할리우드同盟郵信】『다뷔드·캇파필드』에 出演하야一躍어린이俳優로서 世界一이라고 떠들기에 이르른 當年十二歲의 푸레데릭·바도롭뮤君은 叔母의 미리센트가 모든것을 보아주는同時 兩親의 干涉을 一切 不許키로된바 兩親으로 부러는 미리센트를 相對로 어린아히 返還要求訴訟을 이르키어 係爭中 六月 로스안젤스裁判所의 仲裁로 和解가 成立 今後兩親은 每週二百五十弗을 그 收入中으로부터 밧고 一切바도롭뮤君의 生活에는 干涉치안키로되얏다 어버이 자식의愛情도 돈으로 解決되는것이 果然딸라의나라다 (但바도롭뮤의집안은英國人) (完)

◇…바소로뮤少年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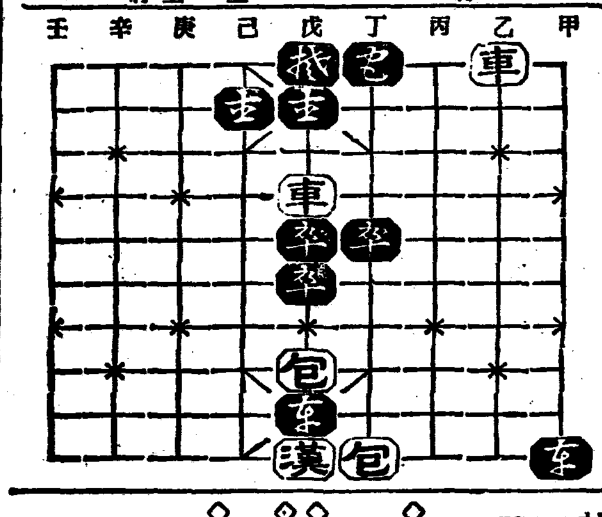
漢先手 李在鳳 對 楚一兵 李英鎬

◀百手圖▶



◀百十手圖▶

戊四包ー戊八(呼將
丁六包ー戊六
乙四車ー乙七
丁三包ー戊二
辛十車ー辛四
己二包ー己三
辛四車ー戊四
己三包ー己九打士
乙七車ー乙二
己九包ー戊九打士 呼將



라디오

☆曆☆

七月廿六日(日) 陰乙未六月小(初八日)

己酉·土·房·滿

●祭祀嫁娶移徙裁衣上樑午時開市 納財에 宜한日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二十五日(土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 旺新學院兒童 伴奏 金泰哲
◇同七時 時事解說 申基碩
◇同八時 講演 "原始人의生活" 埈材高普 金汝植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설음의벌판 二、쌍쌍희 三、放浪者의노래 四、平壤打令 五、청사초롱 六、故鄕의하늘 七、新農夫歌 金彰培 申蘭秀 文一華
◇同九時二〇分 라듸오드라마 DK管絃團 伴奏 팔지(腕環) 一景 —配役— 알프렐스트로作 金鵬三譯 發聲順
스미스(下女)……金仁順
윌리암(下僕)……朴貞植
마린(執事)……金桂永
웨스탄(實業家)……楊薰
애리스(그의妻)……白雲
로마스(判事)……林流影
로마스夫人……趙曉雲
파렌(家庭敎師)……田曉星
演出 金英轄 音·蟠會 效果 李昌林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 노래공부 단遊子
◇同六時二五分 (東) 趣味講話 中村古峽
◇同七時三〇分 (東) 童謠獨唱 松本俊子 伴奏알메리아管絃樂團
◇同七時四五分 (東) 라듸오드라마 —作並演出小崎政房 松竹大船一行
◇同八時一〇分 (東) 밴도네온 杉井幸一
◇同八時二〇分 (東) 이야기와 詩吟—야기奈良島知堂 詩吟 佐佐木孝吉
◇同八時四〇分 (東) 今日의漫談—秋山右楽 秋山左楽

二十六日(日曜)

◇午後零時五〇分 伽倻琴散調 一、散調 (가) 진양조 (나) 중모리 (다) 자진모리 二、(가) 大丈夫 (나) 새타령 鼓手 鄭雲仙 韓千鴻
◇同一時二五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三〇分 童話劇『새의나라』一景 —配役— 새끼골두새……金貞淑 산비둘기……朴東涉 다구리……尹相先 산새……딱貞姬 부령이……金重培 百合어린이會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指揮 金順植
◇同八時 流行歌(레코ー드演奏) 金包光
◇同八一〇 (大)室內樂 四重奏曲 A短調 作品二九番……슈ー벨ー드作曲 第一樂章 第二樂章 第三樂章 第四樂章 第一빠이올린 콘라ー트·리ー푸렉트 第二빠이올린 島田猛 비오라 西田秀雄 쳴로 吉田壽
◇同八三五 古談『妖物奇語』 庚秋岡
◇同九時 朴淵瀑布外 一、朴淵瀑布 二、靑春歌 三、漢江水打令 四、사발가 五、늴리리아 六、방아타령 短簫 金明洙 細笛 姜龍洙 任玉順
◇同一〇時〇分 鮮滿交換放送 —釜山으로부터— 南道歌謠 一、短歌 片時春(獨唱) 裵雪月 二、唱劇調 春香傳中(春香秋冬)(獨) 崔琴香 三、俗謠 興夫歌(齊唱) 崔鼎花 四、唱劇調 水宮歌(齊唱) 趙錦坡 鼓手 吳德七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滿)農村講座 中山昌之介
蒙古風景 新京서中繼
◇同一時二〇分 青年講談의午後 旭堂南鶴外
◇同六時〇分 管絃樂(DKO-케스트라)
◇同八時〇分 (福)俚謠博多節 秀子
◇同八時一〇分 (大)室內樂 島田猛外
◇同八時三五分 (東)浮世節 東家駒之助
◇同八時五五分 (重)落語 柳家小산

二十七日(月曜)

◇午後零時五分 (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三時一五分 常識講演 總督府社會課長 金大羽
◇同六時三〇分 童話 高在天
◇同七時 經濟解說 實專敎授 尹行重
◇同八時 趣味講演 名山大刹巡禮(一) 金日坤
◇同八時三〇分 歌謠 一、歲士歌 二、時調 金寶紅 細笛高載德
◇同九時 獨唱 一、歌劇『마르타』中에서……쓸로토ー作曲 二、主아페獨唱을請합니다……쏠되니作曲 三、라·팔로마……이라디에르作曲 四、아그래어떠냣고나……글룩크作曲 五、安息의님……슈ー버ー트作曲 安輔承 피아노伴奏 金信福
◇同九時三〇分 긴念佛外 一、긴念佛 二、자진念佛 三、孔明歌 四、자진배따라기 五、寧邊歌 李瀛鳳 金玉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英語講座 山本修二
◇午後二時 水泳講座 野田一雄
◇同六時 (仙) 이야기 佐藤幸夫
◇同六時二五分 (仙) 東北의집 올라저서 仙臺郊外에서中繼 關屋五十二
◇同七時三〇分 社會事業座談會 日野春吉外
◇同八時三〇分 二曲 宮谷仙幽外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天中軒雲月

青春座에서 새푸로公演

(寫眞은 사랑에속고 돈에울고의一場面)

林仙圭作 사랑에속고 돈에울고、四幕五場。洛山人作、喜劇 헛수고했소、二場

絢爛한 天分의 爭覇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ー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베르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체르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慢性胃腸病의 治療法一新

胃擴張、胃潰瘍、胃下垂 胃아토니、胃腸가다루等等 의新學說과綜合榮養療法

慢性胃腸病이라하면藥治하던것을 念頭에두어、意志가弱한者는그것만으로도 밥을굶던지는일이만타 그런데慢性胃腸病의治療法이라하면 무엇보다도물섭이치게

嚴重한食養生을

직히다해서 이것을먹어서는안된다、저것도먹어서는안된다、하지만、食事에對한恐怖心을나아、一層食慾이減退되야 消化도더욱惡化되는일이만타。

그런데最近은 進步된醫學說에 依하야 모ー든慢性病의治療에는 榮養의增進이第一이며 榮養은生活力의根源이되며、또한抗病力、治病力이됨으로써、慢性胃腸病의 治療에當面하더라도、여러가지食物禁忌를言어、食事에對한恐怖心을더하기보다도、積極的으로榮養增進의方法을考慮하는것이조타。그것은以前에도、맛카리손博士等이 提唱한바이지만、最近아론·와이스兩敎授等이

胃潰瘍의治療에

아미노酸의一種인히스치진을注射하야著効를發見한以來、慢性胃腸病、胃腸의惡質的疾患이라하기보다도、어느種類의榮養素의不足으로부러오는、榮養障碍라하는것 카리손博士等의說이、一層確實히 內證되야、治療法도一新의機運에 到達한것이다。

그런데、어떠한榮養素가不足되는가하는것은、그러케簡單하게는알수업는것이며 도한그에適當한榮養素를補給한다는것은 困難하지만、活性헤ー무蘭劑「와까모と」와가튼 細胞賦活作用을가주어 綜合榮養劑를 使用하면 比較的簡單하게不足되는 榮養素를補充하며、더욱히衰弱된 胃腸의組織을強化식힐수잇슴으로서、모든慢性胃腸病에 推奬되는것이다。

即、「와까모と」는 리친 히스지其他아미노酸、레시친、누구레인、구리코ー겐等의 榮養素 카르슘、鐵等의 無機榮養素、비타민A、B、D、E에이르기까지人體必須의榮養素는거이網羅되야잇슴으로써不足되기쉬운榮養素를補給하는것은 勿論其他十數種의活性酵素호르몬等을 含有하야此等綜合作用으로衰弱된胃腸의細胞組織에 活力을給與하야 그機能을強化식힌다하는 細胞原形質賦活作用을 具備하야 慢性胃腸症에對하야는 顯著한効果를發揮할수잇다。

★배ㅅ속의곰팡이

食物과 腸胃에도 사람의 배ㅅ속과가티 雜多한 곰팡이(黴)가 사러잇서한다。大槪에 害毒하고잇는 細菌、黴生物類이 그것이며、눈에보이는 곰팡이는 얼마든지잇지만、눈에 보이지안는 배ㅅ속에 곰팡이는 얼마든지잇다、그대로두면 腐敗醱酵하야、여러가지 毒素를 放出하며、害가 되어서 여러가지病의 原因이된다。이런곰팡이를 업새는데는「錠劑わかもと」와 가튼 整腸劑를 使用하라。이藥은 生生한 微生物、即 一種의 곰팡이를 特殊한方法으로 乾燥한것이며、배ㅅ속에 들어가면 다시 生活을 始作하야、旺盛한活力으로써 有害한 곰팡이를 退治하야 배ㅅ속을 淸潔하게 掃除하여줌으로、腐敗와가튼病을 防止할수잇다、

空腹感과 食慾과는別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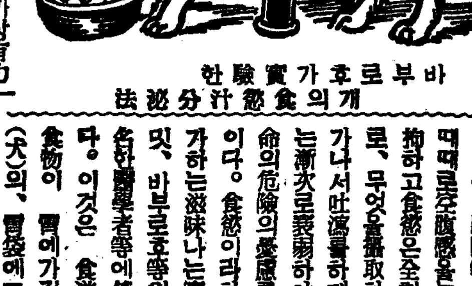
食慾은健康을測定한다。가장有力한바로메ー터이다。特히慢性疾患의經過中에서는、豫後의良否를卜하는第一步라고할수잇다。그런데 꿀흔다건만으로서는、食慾은생기

注意

하지안흐면안될 것은、다만배가 지안는다。例하면姙娠의初期에 생기는 惡阻等으로배가곱하서 때때로空腹感을느기게되여도조금하고食慾은조금도생기지안흠으로、무엇을攝取하더라도곳嘔氣가나서吐瀉를하게되야、그結果는漸次로衰弱하야、乃終에는生命의危險의憂慮를늣기게되는것이다。食慾이라하면어떠한것인가하는滋味나는實驗이、저 유명、바브로-ㅍ等의世界的으로有名한醫學者等에依하야盛行되엿다。이것은 食道를切斷하야、食物이 胃에가지안코목한 개(犬)의、胃袋에고무管을揷入하야 胃液을 試驗管에採取하는

裝置

를하고、이 개(犬)에食物을주면 그開는、口中으로부터唾液을、胃內에는消化液을旺盛하게分泌하야、消化의準備를한다。이렇게分泌하는唾液과消化液을食慾汁이라하는、目으로가想像하는食物의種類에依하야 食慾汁의性質도相違하여온다。例하면乾燥된食物에對하야서는、多量의唾液을分泌하야、선食物에對하야서는、아루카리性의唾液을내다고하는等이다。그런데개(犬)사이에、가장興奮하는고양이를볏다노흐면、개는大怒하야、곳食慾汁의分泌이中止되야버린다。即食慾汁의分泌은、第一로空腹일것、第二는嗜好食物을생각하여냄、第三에快適한精神狀態에잇는것、이와가튼條件에左右된다고하는것이알녀지고잇다。



바부로후가實驗한 개의食慾汁分泌法

그러치만 右와가튼條件이具備하더라도 重要한食慾汁을分泌하는機能에 障碍가잇슬때에는、食慾汁은 充分히分泌되지안코、따라서、

健康

한食慾이생기지안는다。從來는 食慾增進의方法으로써는 苦味劑其他의刺戟劑로써、胃粘膜과唾腺을刺戟하야、食慾汁의分泌을 促進하는方法이行하여지고잇지만、이것은一時의機械的刺戟에不過함으로써、너머도큰期待는가질수업다。그에서最近에는、前段에論述한活性헤-무蘭劑「와까모と」를常用하면、가장根本的으로胃壁의組織細胞에活力을給與하야、食慾汁의分泌機能을、內部로부터强化하야、食慾을이르키는 方法이行하게되며 慢性病의治療에光明을發見하게이르럿다。即「와까모と」가含有된 十數種의 活性酵素 호르몬 비타민其他重要한 所謂細胞原形質賦活作用에依하야 消化腺과粘膜을組織하고 細胞의障碍가取除되어야 健全한機能을恢復하야 旺盛한 食慾을回復하게되다。

右의「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으로부터 三百錠入千錠入의 二種이며 一日分錢程五、大瓶(小兒에는一、五歲)으로 藥店에서販賣하고잇다。

就職第一步의 胃腸病에서救出

(大津) 今井止孝

(前略) 小生은 學生生活을 마치고 務務署의 一員으로써 就職하엿든바、元來胃腸病인데다 過度한 運動不足과 劇務때문에、胃腸을 傷하야(中略) 顏色이 파리하고、食慾이나지안코、一層衰弱 就職第一步에잇서、그와가튼형편으로因하야、到底히 業務를 감당할수업서다。어떤날 大阪朝日新聞에서 「錠劑わかもと」의 廣告를보고 그럴듯하기에 一圓六十錢에서사다 服用하엿든바、身體의 疲勞가 輕快하야、腸內에 活氣를 띄고、胃腸은正常的으로되고 便通도 規則하게되야、學生時代보다 就職에의 時期에잇서、누구든지 빠지는運動不足、胃腸障害로부터 救出되야、비로소錠劑わかもと에對한 感謝를 알게되엿스며、至今은 그날그날의 劇務와자위가다。

目下務務署는、大多忙의 時季인바、運動不足과 休養不充分때문에、自己가 가장 實驗한 健康이 害치게되엿슬때에 「錠劑わかもと」가 特히 健康에 全心을元氣를 어떠(中略)하며、健康活力에 넘치어 職務에 精勵하야、腸內活動을 旺盛케 「錠劑わかもと」에 敬大와 謝意를表하며 知友、同僚에게도 勸하고십습니다。

掛圖寄贈 引換券을活用하라

「わかもと」에添付한引換券을小學校에持參하시면、榮養보내서小學校에다방정한教育掛圖를寄贈하여드림

東京芝公園十一號地 敎育資料會

六月中의咸南鰮獲 比前年의二割五分

總水揚高는三萬餘樽에不過

元山水産試驗場의調査

【元山】지난六月中 함남연안의 정어리어황을 원산수산시험장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연안일대에는 의연히 어군이 희박하얏고 어장은 삼호(三湖)이북이십마일로부터 백마일사이이엿스며 연안에는 은어군이오지안하 특히 정치망(定置網)어업자는 조금도 못잡앗다 그리하야 六月중수량고는 약삼만통(樽)으로 이것을작년동기에 비하면 실로 이할오분밧게 안되는 흉어엿다고한다 칠월에들어와서도 은어황은 의연히 부진하고 어장은 신포(新浦)이북으로서 하로에 열통내지 팔십통의 어획이 잇슬뿐이라는데 더욱히 원산부근의 수온은 아직도 은어의회유에 적당치안하 한마리의 어획도업다고한다

釋王寺事件 韓全兩氏釋放

【元山】함남대본산인 안변 석왕사(釋王寺)원산포교소 한영규(韓永圭)씨는 배임급 업무횡령 혐의로 안변서에 피검되여 취조를받다가 원산검사국에 송치되여 사전(寺田)검사의 취조를받고 며칠전 무사방면되엿다고한다。

【元山】석왕사(釋王寺)감사로잇는 전상호(全相鎬)는 배임죄의 긔소유예로 잇다가 다시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야 안변서의 취조를거처 원산검사국에 송치되엿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그동안 사전검사의 주열한 취조를 밧고잇던바 지난 이십일 긔소유예로 다시 석방되엿다고한다

大正、昭和兩校生 百餘名退學處分

父兄이戶別割滯納한理由로

滿鐵當局의怪處事

【安東縣】안동만철지방사무소에서는소화、대정(昭和、大正)량보통학교를 관리하여오든바 지난이십일일에 호별할(戶別割)을체납하는사람의 자제 일백사십팔명(소화에서 백삼명 대정에서삼십오명)에 퇴학처분을 단행하엿는데 호별할은 년수입 최하륙백원잇는자부터 징수하든것인데 금년부터는 동포전부에게 학교경비부족이라는 리유로 최하에오원(三十등)을 내기에 분하여야 된다 학부형측에서는 그대책을 강구중인데 호별할오원은 빈궁한동포에게 사실과중하여 경제상 출허하므로 그와가티 되엿는데 이번에만주국의처사에 일반은 비난이놉다한다

九化公立普校 學年延長運動

期成會代表陳情

【長淵】장연군 구화공립보통학교(九化公普校)는 종래사년제로 인하야 동교졸업생으로는 도저히 상급학교에 취학할수업서서 일반학부형은 아동교육상 매우유감으로 생각하고잇든바 동면면장 박련선(朴璉善)씨는 이에 느긴바잇서 동면내일반유지제씨의후원을어더 작년봄에 학년연장기성회를 조직하고 이래 기성금이천여원을 조달할예정으로 진행되엿슴으로 지난십구일에 긔성회총회를개최하고 학년연장에 적극적운동에착수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야 당장에서 진정위원 남상필(南相弼) 김문환(金文煥)리종긔(李鍾基)삼씨를 선정하야 군당국에 진정하도록 하얏다는데 동교는 지리상이나 사회사정을보아 학년연장이 가장필요하다고 리천면에잇는 위천(渭川)소남(小南) 대강(大江)장도(長道)각공보교일반학부형들이 열렬히 후원하고잇다한다

◇……江上에閑日月 (寧邊九龍江所見)

鰯魚群의襲來로 鰮獲에被害莫大

清津近海業者도不安

【清津】함북연안일대에 정어리가 나지아니하야 수천어민들은 불안에잠겨 정어리 잡히기를초조히 기다리든끄테 지난십칠일부터 정어리가 잡히기시작하야 흉어에 울든어민들이 이제야겨우수미(愁眉)를 펴게된 이때에 또다시 바다의소식은 불안과공포를 가저오게되얏다 조사한바에의하면 정어리잡이에 강적인 바다의깽「이리」라일컷는 상어떼가 청진근해와 어대진부근에 몰녀온것이 판명되얏는데 이상어떼로 인하야 은어업에는 큰지장을이르켜피해가 막대하다고한다 이제야본격적 은어긔에 드러가려하는이때에 여차한바다의 깽이 출현한은 본도(함북도)은어업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게될 것으로 청진에잇는 함북수산시험장에서는 오는팔월이일부터 동시험장의 연습선인 백양환(白洋丸)을 출동케하야 상어떼를 퇴치하기에 노력을하리라고 전한다

地方人事

▲德富熙之助氏(…)新任人事次 本社黃海支局來訪
▲三上正之氏 (…)新任人事次 本社…支局來訪
▲岡山氏(谷山署…)新任人事次 本社谷山支局來訪
▲砂川親吉氏(槐山署司法主任)新任人事次 本社槐山支局來訪
▲吳範洙氏(公醫)今般開業人事次 本社白川支局來訪
▲朴宗源氏(開城商工會議所會頭)新任人事次 本社開城支局來訪
▲孔鎭恒氏(開城商工會議所副會頭)同上
▲八木右一氏(開城商工會議所副會頭)同上

德山文廟修理費 有志喜捨遝至

【禮山】충남예산군덕산면사동리(德山面社洞里)에잇는 덕산문묘(文廟)에서는 동문묘가파손된곳이 만하 문묘자체의체면문제도잇서서 수축을 계획중인데이소식을전한 일반 유림측에서는 전긔문묘수리비(修理費)로최고백원으로부터 최하십원까지 희사하는분이 만하 벌서 오백여원을돌파하엿다하며 수리하는곳은대웅전(大雄殿)을비롯하야 동재서재(東齋西齋)및명륜당(明倫堂)이라하며 의연금(義捐金)과 씨명은 다음과갓다

▲崔寬文百圓 ▲吳明淳六十圓 ▲金昌秀五十圓▲安鼎顯 李成來三十圓式▲宋鎭憲 金文鎬 張昌吉 松平 金敏圭 二十圓式▲張麟燮 朴商甄十五圓式▲申泰完 白湛鉉 劉秉秀 蔡錫晩 申鍋右 孟日煥 孟在鳳 崔俊英 李東寅 韓永淳 李憲遠 崔秉權 盧昌憲 印鍾緒 李而榮 金敏斗 各十圓式

鏡城初有의 拳鬪大會盛況

【鏡城】경성동양한이빈고려광권투구락부선수(京城東洋、高麗拳鬪俱樂部選手)와 재경성(在鏡城)선수들을 망라한대항권투대회는 이십일일 저녁여덟시밤부터 경성공회당에서 개최하엿는데 [illegible] 일대특막전은 일반의주목을 끌엇다 백열전을 연출하야 세시간에궁한 대성황리에 [illegible]를 일우고 무사히 끄틀마치엿는데 그전적은 아래와갓다

×梁昌錫(哈)四回戰(京)池 燮○
×金秉作(鏡)六回戰(京)趙成善○
○朴鳳得(京)八回戰(哈)고투林×

暑症의泄瀉腹痛 全江界을掩襲!

臥席呻吟患者數千名의多數

其中에도小兒가尤甚

【江界】강계지방에는 배가 아프고 설사를하야 서중에신음하는 환자가 강계읍에 대마원상태로 일일평균팔십명식 각병원을 한하면 매일사백명에달하야 전강계에 만연되여 잇는바 십세미만의 유년이 더욱심하야 이삼일로 내지일개월의 치료를 밧게되여잇다한다 당국의 처사가 불철저한 점에 대한공격이 심하여지고 잇스니 일방 채취광을 확산중가하는 천연빙 인조빙제조도 특수개인에게 맛기지말고 여러방면에 허가할것이라는소래가노파가고잇다

作業中電線墜落 重輕傷數名을내여

長津水電工事場慘事

【吉州】지난이십일일 오후오시경 길주군영북면봉암동허촌부근(吉州郡英北面鳳岩洞許村附近)에서 장진수력전긔회사 전선가설공사작업중(長津水力電氣會社電線架設工事作業中)우연히 전선이 [illegible]일(金東一)(三) 최생금(崔生金)(三)염생룡(廉生龍)등은 치료일개월이상의 중상을 당하엿다하며 그외에도 작업인부수명이경상을 당하엿다는바 피해자들은 지금 길주철도의원에 입원치료중이라고한다

長湖院에도赤痢病

【長湖院】음성주의비등함을따라 위생상으로 극히주의를요하는요사이 장호원시내는 적리가대류행하야 현재고통을당하는 사람이 삼십여인이며 특히십세미만의소아들은 생명에위협을바다 이미희생을당한사람도잇슴으로 일반시민은 불안중에싸여잇다한다

夏節의例症인 赤痢病의猖獗

新昌住民의恐慌

【新昌】최근각지에서 한발의피해로 일반의 인심이극도로 불안중에 잇슴은 세인의주시하는 사실이어니와 요사이는 혹서의 여름이라 전염병의 범람도 자못크더니 북청군 신창항에서는 지난달부터 적리환자(赤痢患者)가 날이갈수록 늘어가는현상으로 매우우려중에잇든바 작금의 신차조사에의하면 적리병이그수위를 점하는모양으로 이병자는 주로 칠살세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심한바 더욱이 만연할형세이므로 리민들에서는 자못공포중에 잇다한다 따라서 경찰당국에서는 방역공진(防疫活陣)에 매우 노력하는가이나 아동가진부모들의 주의가일층필요하다고한다

짓발피인父子道

―生活難에쪼달리다못하야 慘!三歲女息을投水殺害―

寧越郡下의人生慘劇

【寧越】나날이 닥쳐오는 생활난으로 자긔의 사랑하는 어미업는 세살된 어린딸을 십여길되는 물속에 잡어너허죽인 전고미문의 잔악한죄를 범한아버자가잇다

녕월군 하동면 와석리(寧越郡下東面臥石里)한진근(韓振根)(三?)은 나날이 심하여가는 생활난으로 할수업시 정든고향을떠나 정선군 신동면 고성리(旌善郡新東面古城里)에가서 남의집고용사리를하야 처자다섯식구를 근근히 먹여살어든중 우연이 그의안해 한씨(三?)가 떨어드러 불귀의 객이되자 아들삼형제와 금년세살되는딸과 남매를 다려고 등등의길을떠나 헐가친척과 친구의집을 모조리 차저다니며 어린아이들을 의탁하려하엿스나 무정한사람들은 하나도 그의요구를 드러주지아니하야 최후에는 매부를 차저가서 애걸하엿스나 그역시 불응함으로 그만 세상을 비관하고 캄캄한밤을 리용하야 전긔 사남매의자식들과 가티 죽어버리려 결심하고 재고잇는 어린 애들을 드려다보고 한참이나 주저하다가 참아 다― 죽일수업서 첫딸이 죽어바리면 남은애들이야 사라갈것을생각하고 그만 빼고파우는 딸을 둘너업고 약사마장되는곳에잇는 금광구에가서 물이깊은곳을발견하자 두눈을 깜고 뛰여들려하든찰라 다시생각은 이와가튼사정은모르고 잠자는애들 삼형제에게 마음이 쏠이여 몃번이나 주저하다가 그만 세살된 어린딸만을 물속에 집어너코 그자리에 혼도되엿다가 얼마후께여난후 삼형제를 [illegible] 일행으로 그저도라와서 살고잇섯는데 사건은 지난십사일에야 전긔금광에 다채출하게되자 시체를발견하고 경찰에 알연비되엿다 녕월경찰서에서는 [illegible]사부장과 엄(嚴)형사로 하여금 전군적으로 수사중에든바 지난 이십일 녕월군내 하송리(下松里)에서 자범을 체포하야 방

市民苦痛

飲料水不足

【平壤】비오지안는 평양일대에는 삼십륙도를 넘는혹서이어 계속하고잇서 십팔만부민들은 어름과 채호고엿는 터인데 도당국의 방침으로 대동강에 만흔 천연빙은 위생상부적당하므로 인조빙(人造氷)으로 부민에게 공급할 방법을 세웟다하야 천연빙 채취업자에게 엄금을가하는 아니라 제작량의 증가를통하하는 태도를 취해오든바 작금에는 인조빙회사의 긔계가 누차 고장이 생기어 인조빙공급을 가능이 빠젓다 이때문에 부민들은 엄청나는 고가의 어름을 먹게될뿐아니라 음료수의 부족을 고하게되엿도

初等校擴充策으로 私校에財政援助

【咸興】함남도에서는 명년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초등교육제이차 확충안을 실행하기로되야 목하 착착계획을 진행중에잇는바 이와동시에 사립학교도 그내용을 충실히하기위하야 고원(高原)안변(安邊)장진(長津)의삼군내 십개사립보교에 도비로보조하야 완전히 재정이 확립한학교로 만들계획이라고한다

酒狂을叱責한다고 洞里老人을打殺

延白郡下에서생긴慘事

【海州】술취한청년이 폭실로인을 몽둥이로 때려죽인참극――연백군봉서면미산리(延白郡鳳西面美山里)륙백십칠번지에사는 박녀학(朴汝學)(六?)이라는 늙은이는 지난칠일 오후팔시반경에 연백읍에갓다 집으로도라오든중 미산리재현동(美山里齋峴洞)해걸에 다담엇슬때 마른편으로부터 자가와가튼 동리에사는 신종석(申宗錫)(三?)이라는청년이 술이만취하여 벌거버슨몸둥이로 소나무몽둥이를 휘둘으며 달여옴으로 부모와가튼마을의 로절로자가 무슨노래이냐고 책망하엿든바 신종석은 돌연히 박로인에게 달려들어 뒷머리로부터 등으로향해서 들엇든 몽둥이로 내려쳐서 당장에혼도시겨 인사불성상태에 빠지게 하엿섯든데 이로인하야 박로인은 이십일일 오전세시반경에 사망하엿다 이보도에 접한 연백서(延白署)에서는 즉시 경관이출동하야 신종석을 체포하여 취조하는일방 사법주임은 공의를대동하고 현장에 달려가서 시체를해부하엿다한다

冷害民을同情 隣保相助

三水와端川서

【咸興】련상명랭해로인하야 삼오륙만의 이재민이 생사의싸흠터에서 헤매고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러한반면에 이들재민의 참상을 참아볼수업다하야 압는주머니를털어 동정금을희사하는 마당이속출한다 삼수군호인면 보성리(三水郡好仁面保城里) 김세보(金世寶)씨는 금이백여원을 동면회풍리(?)전도남(田道南)씨는 사십원을 동면지웅리(地雄里)남흥칠(南興七)씨는 칠십원을기거출하야 란근이재민을 구조하얏스며 성진군학서면장(城津郡鶴西面長)려동춘(呂同春)씨는 솔선하야 면내에서 일금백여원을 모집하야 린접하야잇는 단천군북두일면(端川郡北斗日面)면민을구제하얏다한다

말성만든清州邑政 今般엔또橫領事件

【清州】비난이 폭주하는 청주읍윤시 부읍대부사건으로인하야 청주읍내정불통일(清州邑內政不統一)문제에 전시민의 격렬한 주목되고잇슴은 루차 보도한바어니와 그로인하야 부하감독에 밋치는 영향도 적지안흘것이다 먼저 읍고원(邑雇員)의 공금횡령사건이 폭로되여 문제의 고원은 지난 이십이일부로 사표를 제출하는동시 사직의 손에 거치게된 모양이라는데 사건의 내용을 탐문한바 작년칠월이래 문제의 시장사용료 보자를 중심으로 시장사용료 수백원을 횡령한것이라한다

田穀까지絕望

金川郡의旱害

移秧水量勿論

【金川】황해도금천지방은 동계

시 고사상태로 들에 나아가면 전답이모다 목불인견의 참상이고 시가지에서는 음료수의 고갈노 막대한곤난을 당하고잇서 인심은극도로공포에차저잇는데 금천군당국에서는그대책을강구하기위하야 지난이십삼일 오후두시부터 군청회의실에 회합하야 다음과가튼상항을 결의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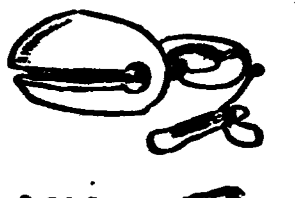
一、代作에關한件
二、新雨祭에關한件
三、堆肥增産指導의件

半年間變死百名 溺死만이五十名

其中에도生活難、病苦가多數

平壤署管內의集計

【平壤】금년일월부터 금월이십일까지 평양서에서 취급한변사자의수는 약백명으로 변사자라고하면 익사(溺死)동사(凍死)와사(餓死)음독(飲毒)투신자살(投身自殺)등인데 그중에서가장만흔것은 대동강투신자살과 수영중익사한것으로 지금부터 겨우일개월반동안에 오십명에 달하엿고 최근에도 계속하고잇서서 마의대동강은 매일오사명이 익사하는날도잇다 투신자살의 원인은 대부분이 생활난 병고가 정흔원이며 각이한사정은 연애관계와 투신자가적엇다는것이다



愛慾의彼岸 【61】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시체실에는 다른 시체 하나가 거저 누어잇섯다。그것은 아인가싶허 기럭지가 짧엇다。세멘트 바닥、거긔 노힌 경운 침상 틀、그 우에 누은 두 시체、전등人불에 비추인 그 그림자、저편 시체 겨테서 흩적흩적 울고안젓는 부인네、이런것들은 혜련이나 문임이나 인생의 본질의 주인인 사람들에게는 넘어나 비참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이엇다。

언제까지 바라보아도 끔작도 아니할까。바로 얼마전까지 딸다려도 울지기고 고개도 이리저리로 돌리고 정신잇는 외마딋 소리라도 말도 하고 몸도 달라고 하고 손을 내밀어 혜련을 부르기도 하고――이런 모든 일을 하던 어머니가 어쩌면 저러케도 가만히 잇슬까。아모리 바라보아도 끔작도 바작도 아니할까。

정신에 구슬땀이 흐르고 숨이 갓바 혀을 추며 가래가 끌런、그것이 인생으로의 마즈막일이엇다。갑작히 악살을 당하는 사람을 제하고는 누구에게나 평등으로 오는 인생의 마즈막 고통의 써비쓰。『혜련、혜련』하고 힘드는 숨을 쉬면서 눈을 뒤솟는 양은 혜련이나 문임에게는 참아 볼수업는、숨이 러러 막히는 광경이엇다。아모리 주사를 노하도 산소흡입을 시켜도、혜련이가 피눈물로『어머니』를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도 예정한 죽엄의 프로그람은 변할수가 업섯다。혜련이가 죽는이의 압에 물을 떠너흘 때에 그것은 힘업시 주루룩 흘러나오고말앗다。그리고 숨이 차차 늘여지기 시작하야、마치내 똑 끈허질때、끄르륵하는 소리가 한번 나고는 다시는 가슴이 움지기지를 아니할 때、그때에 혜련의 어머니는 죽은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어찌 되는것일까。금방살앗던 어머니가 어듸로 갓슬까』하고 혜련은 어머니의 시체를 바라보앗다。흰 홋이불에 싸운 시체。그것이 누운 침대보다도、세멘트로 다진 땅人바닥보다도 더 고요한 시체、땅에 뭇처서 흙이 되어버릴 시체。

혜련의 눈에서는 눈물도 떠나오지아니하엿다。

『죽엄이란 무엇인가。산다는것은 무엇인가。나다는것은 무엇인가』

하고 혜련은 인생을 생각할때에 시체와 해골이 넘너른한것업는 광야가 눈아페떠올랐다。

『나도 저시체들중에 하나다』

하고 생각할 때에 혜련은 몸에 소름이끼첫다。

혜련은 문임에게 끌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어듸로 갓슬까、과연하늘나라로 갓슬까、하고 별이총총한 자정넘은 하늘을 우러러보앗다。그러나 어머니의 일생을 생각하면 그 혼이 하늘나라로 갈것 갓지아니하엿다。혜련은 어머니가 어떠케 울주를 구찬하하고 미워하엿던가、어떠케 침모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엿던가、어떠케 하인들에게 무정하게 하엿던가、문임에게 대해서까지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젓던가、를 생각할때에 어머니가 혜빈파가티 빗나는 옷을 입고 수정과 정금으로 되엇다는 한울 나라에 오를것 갓지아니하엿다。어머니는 집에서 알을 때엣 모양으로 머리는 허트러지고 옷은 때못고 꾸갓꾸깃하고 얼굴은 성남과 미워함으로 찌그러지고――이러한 초라하고도 바참한 모양으로 칙칙한 죽엄의 골작이로 헤맬것만 가탓다。

이러케 생각할 때에 혜련은 슬펏다。

『어머니、그러시지마서요。섯경애 미워하지말라고 안 그러섯서요?』

하고 섯난 어머니를 간하던것을 혜련은 생각하엿다。

『그러타。에미는 지옥으로 간다!』

하고 악을 쓸뗏 어머니를 혜련은 생각하엿다。그리고는 혜련은 슬펏다。길人가에 잘은 집들―그집들 속에 자는사람들과 어머니와를 비교하여보앗다。어머니는결국 남보다 더 악한사람은 아니엇다。돈잇다고 아첨안지는 모르나 도로혀 면숙하다는 말까지도 교인들중에서도터 부인이엇다。

혜련은 갈게 한숨을 지엇다。

洪城
第二回全朝鮮個人庭球
▲時日 七月二十六日午前八時
▲場所 洪城南山公園코-트
◇主催 洪城和信達鎭店
◇後援 朝鮮外兩支局

提川
第一回中朝鮮蹴球大會
◇時日 七月二十六日
◇場所 提川公普運動場
◇主催 提川蹴球團
◇後援 朝鮮日報提川支局

金村
蝀龍窟及平壤探勝團
▲出發期日 七月二十七日午後十一時四十六
▲會費 十二圓 ▲定員 二十名
◇主催 金村
◇後援 朝鮮日報金村支局

統營
夏季特別珠算講習
▲期間 自八月一日至二十一日
▲場所 統營公普校
◇主催 統營珠算普及會
◇後援 朝鮮日報統營支局

마스터ー粉白粉 (マスター粉白粉)

帝都美術界의新知識 美容相談係 마스타ー뷰ー티ー카이도 來京
只今마스타ー本舖로부터新美容法의權威、小泉二孃이出張하야美容에關한相談에應하야大好評을博得하고잇습니다。될수잇스면오서서化粧의困難한點을質問하여주십시요
期日 七月卅一日까지 會場 京城三越四層홀

기름끼는업고 清新味
困難한 皮膚異變!
女性을가장困難케하는 皮膚現象……그것은 夏季에 만흔過剩皮脂……이過剩皮脂를 그대로放任해두면……
▲먼저化粧이기름끼가잇서서 清新味가업서진다、……
▲第二는容易히 回復치안는 惡質이고 部分的인번꺼름을이르키게된다。
어떠케하면 其念慮가업시夏季의 健康色으로 즐길수가잇슬가?
◇最近美容術界에 세이손들이 리킨大發明으로서놀래고잇다 活性特殊白味劑라고해서過剩皮脂만을緩和하고 靜態的으로吸收調節하여준다、大體로貴美肌料를 巧妙하게複合粉子에 와서 配合한마스타ー粉白粉과콤팩트(家庭用콤팩트)를 使用하시면 脂質의번꺼름을 完全히防止하고 化粧에異常히爽快하야 滿點이다
◇日光의紫外線을 吸收하는 鉛와吸收한紫外線을 살결에 反射하는 程度等으로 西澤博士의科學的研究를거듭한 佛國의最高級色素를 應用하엿다
마스타ー粉白粉은 夏季에特히衛生的으로 安全한것은 때마침할것이 업다。

朝鮮內金融體系

普通銀行最多記錄 大正九年末에廿三

●……申泰顯

普通銀行은 朝鮮內의一般的金融機關에 對한 由來의 概略을 簡單히 말하여보겟다 다시 그中에잇서 普通銀行이 어떠한 經路를 밟아 왓는가 함을 살펴보기로 하엿다 생각컨다 即日本內地에잇서 各國의法令으로한 國立銀行의 設立과 그뒤 日銀으로 發券集中되엿스나 依然히 群小銀行이 散在하는 「코ー쓰」의 그대로 朝鮮도 뒤늣게 밟어서 普通銀行이 하나식하나식 생겨온것이다 이에 對한 時期로 보면 다음과 갓다

▲明治十一年의 第一銀行釜山支店設立後로부터 大正八九年까지를 普通銀行設立時代이엇음은 것으로 볼수가 잇다。

×

(一)朝鮮人普通銀行 最初에 생긴것은 大韓天一、漢城의兩銀行으로 當時에는 銀行에關한 特別法規가 업섯다가 明治三十九年三月에 勅令으로써 銀行條例를 公布하야 비롯오 度支部大臣의 監督下에 銀行을 創設하엿다。이때에 財界의 疲弊狀態로 兩銀行은 한때 빗겻스므로 政府는 日本으로부터 借入한金融資金 百五十餘萬圓中 一部를 떼여서 漢城、大韓、天一에 二十萬圓의 貸下金을 交付하엿다 그뒤 明治三十九年八月에 韓一銀行이 생겨 京城에 朝鮮人側 三個의 普通銀行이 創立케 되엿다、그밧게 地方으로 後此에 普通銀行이 創出하엿다

▲日本內地人普通銀行=第一銀行、第五十八銀行等이 京城其他의 各地에 支店을 設置하고 그뒤 日本內地人、朝鮮人合同出資의 銀行이 各地方에 設立되엿다。

×

그래서 明治四十三年普通銀行數가 十一이엇든것이 大正九年末現在가 二十三으로 늘엇고 또그 支店、出張所數가 明治四十三年에 五十九이엇든것이 大正九年末現在에 百廿一로 늘엇다 그러고 이拂込資本金은 明治四十三年末에三百四十三萬圓에 不過하엿든것이 大正九年末에 일으러는 七千九百九十五萬圓으로 激增의 數字를 나타내엇다 또 明治四十三年末에 그預金은 一千八百三十五萬五千圓、貸出은四千九十一萬二千圓 이엇든것이 大正九年末現在에 預金一億三千九百三十五萬七千圓、貸出二億三千六十九萬六千圓으로 膨脹을 보앗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번 생각지안흘수가업는 點이 잇다 即 大正九年末에

普通銀行의 總數廿三이란것은 決코 만흔 數字가 아니다、朝鮮經濟界가 아모리 貧弱하다고 하드래도 朝鮮內普通銀行의 最多記錄이라고 할은 實際에잇서 차라리 進步的數字이엇다고하다 이것에서는 朝鮮이 아니고 普通銀行以外의 金融組合의 介在를 否正하야 以上과 가튼結果를 나타내엿다 卽 넘기 생각하다

▲金融組合은 明治四十二年末에組合數가 百二 組合員三萬九千名이엇든것이 大正九年末에 일으러는 組合數 四百人組合員二十四萬四千名으로 激增을 보엿다。

×

以上과 가티 大正九年末까지는 普通銀行의 全盛時代이엇다고말할수잇다 그러나 이때에잇서 두가지의 못생각지안흘수업는點이 잇다 即

(一)歐洲大戰의 好景氣로 各地에群小銀行이 族出하야 甚至於 資本金 五萬圓未滿의 小銀行까지잇섯다고한다 그러지만 그好景氣反動의不況이 深刻케됨을 따러서 群小銀行은

(二)銀行令發布 이에 따러서 朝鮮總督府에서도 所謂金融機關의整理强化를 企圖하라고 그一端으로 普通銀行의 合同促進方針을 樹立케되엿다

그結果 從來銀行令을 改正하엿다 卽銀行令은 目的으로하는會社의 設立은 會社令과 同令施行規則에 依하야 그認許와 監督에對하야는 銀行令과 同令施行規則에 依하야 行하엿다 元來銀行令은 會社令에 規定된 것이므로 銀行事項에 對한 規定하며 銀行令中에 規定하야 會社令을 廢止하는同時에 銀行令에도 改正을 加하엿다 即

▲銀行의商號、資本金額과 本支店의變更과 銀行의他業兼營에 對하야는 會社令의 廢止後도 總督의許可를 要키로하엿다 더구나 銀行의 合併에 關하야는 總督의認可를 밧지안흐면 法律上의 效力이안생기에 밝히規定하엿다。

×

그래고 다시 大正十二年十一月에 銀行令의 第二次改正을 하야 銀行의合併手續을 簡하게함에 比하야 貸法上의 合併手續에 比하야 더욱簡單케하엿다 이것은 銀行合同의 促進을 目標로한 것이라 그래서 結局은 이때로부터 銀行合同時代에 처음을 내노흔것이라고 말할수가잇다

(未完) 寫眞은 現第一銀行京城支店

昨今降雨影響

稻作枯死解消

今年農形打診

◇……田作에는潤雨로順調

移秧不能地는晚時嘆

二十四日以來 全鮮的降雨는 旱魃의 憂慮가濃厚하든 中部 朝鮮西部 朝鮮地方에도 潤雨로 農作에 밋치는 影響은 다음과가티 田作에는 好影響이 期待된다고。

降雨라고 하지만 再移秧을할수업고 代作의 發芽가 順調로될 程度인데 一般의 稻作의 枯死念慮는 解消되엿다。

◇補播等 田作은 開花期前이므로 매우 順調이며 一面 代作은 京畿道九千町步 黃海道一萬六千町步가 各各 順調로 進展된다。

◇即 米作에주는 影響으로는

天水畓十萬町步

水利改善의施設

畢竟의 根本政策으로 農林局에서는 水利不安全畓의 水利改善에 着眼하야 土地改良課에서原案을 作成하고 農林局議에諮問한 結果 다음가튼規模압에 水利改善에 着手키로되엿다고한다

一、水利不安全畓中十萬町步에對하야 一個年一萬町步의 豫定으로써 水利改善할計劃

一、施行方針은小規模貯水池堰、堤堰의 修復을 行함

一、工事費約五百萬圓 年額五十萬圓中 二割五分을 國庫補助로하고 二割五分은 道費補助로함

一、施行은主로 蒙利地區의賦役에依하야 進行하고 負擔을將來에 안남도록 設計함

同事業의 特長은 水利組合과달리하야 大規模工事에依한 負債를 안남기고 地方的으로 農民의努力을主로 行케할點에잇는바 累年의 被害發生에 對한그施設은 注目된다고한다

產組殖產契

五十個設置

産業組合의 今年度殖産契設置는 合計五十個로 目下殖産局에서 配定을 進하고잇다

農村地帶의 殖產契는 目下殖産局에서 具體的方法을 研究中으로 專賣局이 容認하면 工業團生產會社를 組織計劃을 進하고 日本內地의 日本曹達其他에서는 이鹽田開發의希望이 提出되어잇다한다

東銀總會압두고

株主懇談會開催

미리諒解를求코자

東一銀行에서는 旣報한 會取制廢止와 取締役會會長의 新設 其他問題에 對하야 今月三十日開催의 定期總會를 압두고 미리 株主의諒解를 求코자 二十五日 午後二時부터 同行內에서 五百株以上의 大株主와 一部株主某某等 廿名을 招致하야 懇談會를 열엇다고한다

利原鐵山增產

明後年부터五十萬噸

利原鐵山에서는 增產計畫을樹立하고 過般來總督府當局과 協議한後 昭和十三年度부터 五十萬噸의 採鑛을하기로되어 이미 積出港인 遮湖의 積込設備擴張에 着手하얏는데 今秋十月까지에 完成할豫定이며 今年度는 三十萬噸 昭和十二年度는 三十五萬噸

商銀의兩支店

十月頃에開設

商銀에서는 二十五日의 定時總會에서 三千浦(慶南)及吉州(咸北)兩地에 支店을 新設키로 決定하고 直時正式認可申請키로 되바 開設期는 十月頃이될모양이오 同行의支店 出張所는이로서 四十一個所로되엇다

工業擴生產

會社組織

殖產局서計畫中

化學工業의 進展에 伴하야 工業增產의 要求는 日本內地에서는 重要問題로서 登場되어잇다 工業進出等에 依하야 工業用의 需要가 喚起되어 잇는데 一方 朝鮮에서도 鹽需요ー고 朝鮮의 西海岸은 未開發의 豐富한 田用地가 九千餘町步에 達하다 이것은 京畿 平南 忠南 全北의 各道에 亘하야 開發할 地帶로서 現在 專賣局에서 保留中의것이 九千百七十八町步에 達하고 其中 食用鹽用으로서 留

株式立會停止原因

現內閣態度不明

樞密院서도問題化

【東京電話同盟】 二十一日의 全國株式取引所立會停止問題의 原因은 取引所改革案의 內容이라하야 一私案이 新聞紙上에 揭載된것에 發端된것으로 이事件에 對하야서는 目下司直에서 嚴重取調中임으로 近間判明케 될것이데 財界一般이 相當한 神經過敏이된 根本原因은 廣田內閣은 庶政一新을 標榜하고잇스면서 그實質이 이에 伴치안흠으로 이것은 흘러 하는지 本方針이 定치안은 結果에依한것으로 이點에對하야 相當히 疑惑을 가지고잇는데이단 라는것을 放送하고 甚한것은 未決定의 政策에 對하야 個人의 私案을 宣傳하는 者까지잇슴으로 이때문에 政界 財界를 攪亂케하고 延하야 人心不安케함으로 政友會는 이點에 關하야 廣田首相에게 嚴重警告하고 懇談한바 取引所立會中止問題가 二十三日의 陸軍省官制改正案諮詢의 樞密院本會議에서도 顧問官으로부터 質問이나와서 官紀振肅을 要望한 바 있섯슴으로 이에 對하야 潮內相은 責任으로서 本問題에 關係가 잇는者가 잇스면 徹底的取締를 實行하고 官紀 하야 斷乎處罰할것을 言明하야 顧問官의 諒解를 求하얏다 한다 現內閣은 形式은 擧國一致內閣이나 內閣全體로서 一致하지못함으로 各省이 제각기 革新政策이

東亞買收成立?

"鮮滿拓殖"의 創立은 東亞勸業買收交涉의 不進으로 意外에遲延되엇스나 問題의 東亞勸業의 吸收合併價格도 雙方의讓步로 今日中에 交涉이 成立될 모양임으로 創立準備委員이 目下設立準備를 進하고 八月十日頃創立總會를 開催키로 決定하얏다한다

의決定으로 貸出歲인 日本製鐵 日本鋼管等과도 諒解가되엇다한다

日本商品見本會館

=奉天에建設=

朝鮮貿易協會奉天支部로부터의 報告에 依하면 奉天輸入組合主催下에 在奉各縣駐在員과의 間에滿洲見本市會館設立件에 對하야協議하고各其意見交換을 大略實現될것으로 大要如左하야 하얏는데

一、奉天에 見本市會館을 設立하고 日本商品의 常設見本市場이되게하야 販路開拓取引助長에資할

二、各府縣駐在員의 機能을 助長하고 對內外的 共同行動을 强化할必要上 駐在員事務所와 宿舍의 設備를하야

三、倉庫를 建設하고 實取引의 便利를 圖함

四、場所는 千代田通現日滿貿易館을 買收하고 擴大建設하고經費約五十萬圓은 滿鐵이 負擔하고 輸入組合이 이것을管理함

銀行會社總會

貯銀=朝鮮貯蓄銀行에서는廿五日午前十時十五分부터 同行銀에서 第十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

一、上半期決算案承認과利益金處分案(年八分)可決件

二、定款一部變更(利益金分配基準을變更하야退職手當基金을挿入)件

三、取締役一名補選件等을附議한바 取締役에는 殖銀理事野田新吾氏가 補選되고모다原案可決

商銀=朝鮮商業銀行에서는二十五日午前十時十分부터 第六十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利益金處分案(配當年三分)案을 可決하고慶南三千浦 咸北吉州의兩地에 支店開設에 對한定款變更件을 可決하얏다

取引停止 (七月二十日)

◆海東=海東銀行에서는 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上半期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四分配當案을可決하얏스며 任期滿了의 取締役會長金季洙 監查役高光曦、同金舜鳳三氏를改選結果모다再選重任되엇다

紗商 京城府壽松町一丁目四八番地 六合社 代表者 柳俊東 ▲京城府本町四丁目 洋服商小林商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二〇番地 泉屋鞄店 朴東烈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六九番地 富永晃保

經濟界消息

○朝鮮銀行總會=朝鮮銀行에서는 八月十四日東京支店에서 第五十四回定時總會를開催할터인데 配當은 年四分据置로 決定하고 監事野村益三氏任期滿了改選件을 附議하리라고

○殖銀理事後任=殖銀理事故植野勳氏後任은 大藏省預金部運用課長原邦道氏有力=殖銀理事로 大藏省預金部運用課長原邦道氏로 折衝한 結果 大藏省當局이 支障이업는限就任키로되리라는데 同氏는目下滿洲國經濟顧問의 閑職에 잇다고

○貯銀退職基金制=貯銀에서는二十五日定時總會의 決議를得하야 行員의退職手當基金制를設키로되어 今期二萬圓을 決算案에計上하얏다고

○今日 銀行總會에 株主席出席者가 貯銀六名 商銀十一名、宏壯(?)히 만흔

○貯銀은 이제까지 업던 退職基金制를 創設 時代逆行이란 批難도 잇는모양

○商銀의 支店出張所는 新設될 二支店을 合하야 四十一個所 普通銀行으로서는 支店網이 너무나 廣大치 안흘가?

○비가퍼오다 旱魃이온지 얼마안되는데 水害 소리나 제발 나지 마소서

重要商品界事情

生絲의前途觀

米國의 一般景氣는 매우 明朗性을 띄인것이 事實인듯하다 뉴욕通信에 依하면 株界고 티구나 實業金으로 因한 商品界가 모두 活氣를 띄이며 一般購買力의 增加는 可觀이다 따러서 不拾하든 製品賣分도 進捗되야 秋冬物의 準備에 充分히 期待할수가잇스나 實物이 적으므로 低價에는 買氣가 相當하다。

◇一面 日本內地의 入荷가 늘는것은 도리혀 加勢의 結果가 되므로 反對로 歡迎할것인바 어떠튼지 內外가 모두 明氣는 萎動이라고……

商況 (廿五日)

株式 日產獨高 活躍

前塲日產高 休日을압둔半日立會인今前場은 東新、大新、鐘新이 伸力不振하얏스나 日產에 買氣集中하야 獨高의活躍이엇스니 卽昨後引에比하야 二圓四十錢高인 七十九圓三十錢 日產新 一圓二十錢高인 二十六圓丁 朝新 二十錢高인 三十一圓九錢鐘 五十錢高인 百五十八圓七十錢 大新六十錢低인 六十八圓十錢 東新十錢低인 百二十四圓三十錢 日魯二十錢高인 七十圓五十錢 朝石十九圓四十錢 拓新十錢低인 二十二圓四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七十五圓五十錢 日鑛百七圓丁 北紙二十三圓九十錢이엇다

▲長期取引=東新先限百二十四圓六十錢이 잇섯스며 ▲後場은土曜로例休이엿다

▲朝取 三九五(寄) 三九〇 三九〇(引) ...

▲東新 一三五(寄) ...

▲日產 七八〇(寄) ... 七九三〇(引)

日產投機化?

八十圓關門肉迫

取引所制度改革에 依하야 萬一當所株의上場禁止가 實現되면다시 말할것도업거니와 그러치안트래도 時局이投機抑壓에 漸進케되以上 東新에는 妙味가업서지고 人氣代表株의 王座에서물너나게되는實情임으로 取引市場은東新에代할것을차지하게되는모양인바 米國에서 「스틸」株가 市塲中心의 投機株인것가티日本에잇서東新에 代할者는 資格있는것으로보는傾向이日產을 和製"아나콘다"株라할이濃厚케되엇다 日產은元來投機的色彩가업지안튼차에이번東新의波瀾으로 解散되어도 百二十圓價値가잇다는 日產에着眼케된모양이오 今前塲은 東京短期七十九圓五十錢에까지騰騰되어 買方의第一目標인 八十圓關門을 肉迫하는好勢로活躍을演하얏다 東新의人氣가 果然아조喪失될지 또는東新에代하야 鐘新일지 日產일지는 鄭新을不許하겟스나 何如間日產은 先高觀이잇는터이라相當히 投機的妙味가 添케될것가티보이엇다

東新將安之?

二番底의興否

이번取引所 改革案이라는것은 陰謀이것이 判明되어 一時解消된것이 事實이나 調查委員會의成案에基하야 다음議會에 改正案

實物前塲取引

◆京南鐵道 三元含 ▲金剛電新 一六〇〇 ▲朝鮮製錬 二五〇 ▲도쿄시工業 一六〇〇 ▲朝鮮工業新 三〇〇 ▲日滿아루미 四五〇 ▲伊那電鐵 ... ▲伊那電鐵新 ... ▲北樺石油新 三〇〇 ▲帝國火藥工業 ... (合計 二六〇〇枚)

東京國債市塲

【東京電話同盟】 市中은 再次保合

反落後에 下澁

期米

前塲反落 昨後場阪地三十三圓三十六錢止와共히 三十一圓十九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는天神祭의休會로 東京初付三十三圓二十九錢인 九丁反落의報를 접하고 三十一圓十四錢인 五丁低로 場을始한後東京의漸漸低軟으로 結局十九錢에止하엿다

後塲下澁 後塲은 東京大阪休會인으로 當地는閑散立會인바 三十一圓〇九錢에 五丁低로始塲後 下澁細刻이다가 十三錢에止塲하다

大阪國債市塲

▲甲五分利 一〇一、六〇 ▲第三五分利 一〇一、八〇 ... 四分利 ... ▲米貨六分半 ...

豪雨도無影響

遲延의關係?

滿洲北部와 黃海下流에 低氣壓이잇서 山東省으로부터 朝鮮은 一般的으로 天氣가 險惡하야旱

月末戰臨迫과

來月의大下納

三十一圓七十錢에 發會된 新甫九月限은 一時八十九錢의 高價를 一瞥한後 二十三錢까지 下押하엿다가 更히 八十五錢으로 三十一圓까지 反落하엿스나 一圓臺를瞬破하지못하고 또다시四十七錢의 反撥을 示하야 幾疊幾重의 波瀾을다하엿다 그러나 二年凶作의買氣도 既히一巡되고 目前은 頭上의 天候如何로써산홍게됨으로 日本內地의 土用無事와 旱地中部以北의 降雨가買氣를助長하야 今朝三十一圓十錢을 反落하엿다 이와가티 月末戰은 軟弱裡에 終了될것가트며 아프로 新甫十月限은 적어도 三、四十丁의 大下納으로發會될 모양인데 萬一 그와가티 大下納인때는 當地卅二圓七十錢과 阪地三十三圓五十九錢은 今年度의 絕對天井이라할수도 잇거니와 來月의 當中買方은 十月限의 反落과共히 恐怖的投物도 업지아니할것이므로 大勢를

大阪期米休會

大阪期米市塲은 氏神天神의祭禮로 二十五日前後場共히 休會이다

各地正米

▲京城閑散 來月待로 賣方沈默을 직히고 市況이 極히閑散하야 ⊙三等 三一、〇〇 四等 三〇、七〇 一等白米 一三、五〇

▲仁川同調 期米의 引緩으로 又復賣氣濃의 商狀이오 不振이나 持米側은 依然賣澁하야 이엇다 ⊙三等 三一、〇〇 四等 三〇、七〇 一等白米 一三、二五

▲釜山不動 月末接近으로賣買稀少인데다가 期米의漸落을 사하야 買氣後退으로 不振이市況은자못 閑散裡에 保合이며 産地는 依然積極的으로 賣物 내놋치아햇다 ⊙三等三一、〇〇 一等白米一三、三〇

▲大邱焦付 當用買不振에다가 定期의軟調를移하야 一般으로 沈默이오 沈靜이고 買氣不添하야 人氣에 極히 焦付狀態인 ⊙三等三〇、九〇 四等三〇、七〇 一等白米 一三、〇五

▲群山不變 繼續하야 賣物拂底

▲木浦保合 所持側은 依然 底模樣이나마 作況樂觀氣分과 定期低落步調를보고 買氣萎縮하야 市況은 少弱保合인 ⊙三等三十一圓二十五錢 四等三十一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六十錢

▲□□ 賣氣가업스나 買氣不進이오 定期低와 月末關係로 保合이엇다 ⊙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

株式 (廿五日)

◆朝取短期

銘柄	前寄	前引	高値	低値
朝取	七五·〇〇		七五·五〇	七五·二〇
朝新	三一·二〇		三一·二〇	三一·二〇
鐘新	一五八·七〇		一五八·七〇	一五八·七〇
大新	六八·一〇		六八·三〇	六八·〇〇
東新	一二四·三〇		一二四·三〇	一二四·二〇
日產	七九·一〇		七九·三〇	七八·九〇
同新	二六·〇〇		二六·〇〇	二五·八〇
日魯	七〇·五〇		七〇·五〇	七〇·五〇
北紙	二三·九〇		二三·九〇	二三·九〇
日鑛	一〇七·〇〇		一〇七·〇〇	一〇七·〇〇
朝石	一九·四〇		一九·四〇	一九·四〇
拓新	二二·四〇		二二·四〇	二二·四〇

◆算定代引日步

株名	算定	日步	代引
朝取	七五·〇〇	一九	七五·二〇

朝取期米取組內容

挽回하려면 『모도리』買가 得策일것갓다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 (廿五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 先限 三一·三〇 ... 大阪期米 休會 ... 一斤砂糖 ...

◆綿 (單位圓) 大阪綿糸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海外經濟 廿四日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朝鮮銀行券 廿四日

日本銀行券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米價 京城正米 廿五日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京城綿糸布市勢

棉花 廿五日

京城綢布

鋼材粕市價

豆粕冲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塲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現株

朝鮮短期賣買高

期米 廿五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東京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綿糸 廿五日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康益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土金 石金 分析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本局(2)二一三六番 振替京城一一五五四番

株式 米期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金.銀.白金 德 力京城德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2)3939 振替京城234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送料元金